



# 한미뉴스 HANMI NEWS

10

SINCE 2004  
2023년 10월호

이민생활의 길잡이 한미뉴스  
뉴스 / 생활정보 / 교양 /  
예술 / 건강 / 스포츠 / 여행

한미뉴스광고문의 760-968-7148 [infohanminnews@gmail.com](mailto:infohanminnews@gmail.com)  
9777 Maple Ave. Hesperia, CA 92345

# HD은혜교회 가을장터 & Garage Sale

마켓가격보다 저렴하게 드립니다

\* 날짜: 10월 21일(토) 8시-3시

\* 장소: HD은혜교회 파킹장

주소: 15378 Ramona Ave. Victorville

전화 : (760)956 0399 (760)885 2234

- \* 각종곡물 젖갈류 및 밑반찬(수십가지)
- \* Home made 김치
- \* 장터즉석요리: 녹두빈대떡, 김밥, 떡볶기

왜 LA까지 가십니까 ?





# HD 은혜 교회

HIGH DESERT GRACE CHURCH



“초대합니다”



## 예배시간 안내 담임목사 강기평

- 주일예배 11:00AM(영어통역,수화통역)
- 수요예배 7:00PM
- 새벽기도 화~금 6:00AM

## 교회학교

- |       |                   |
|-------|-------------------|
| •유초등부 | 주일 11:00AM(유초등부실) |
| •중고등부 | 주일 11:00AM(교육관)   |

## HD Grace Academy

HD 은혜 교회에서 Math/Reading Academy 를 Open 합니다 . Ann Kang 교사는 LAUSD, Asuncion 국제학교 , Life Bible College 등 다년의 교사 경험으로 여러분 자녀의 학습을 지도 합니다 .  
대상 : 2nd to 6th Grade

등록 및 문의 : 310-808-7996, annpaulkang@gmail.com



760.844.0882

15378 Ramona Ave, Victorville, CA 92392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 빅토밸리 감사한인교회

Victorvalley Thanksgiving Church

원로목사: 박상훈 담임목사: 최호신

-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 주일 2부 예배: 오전 10시
- 교육부 예배: 오전 10시
- 금요 성령치유기도회: 오후 7시
- 새벽 기도회: 화-목 6시
- 감사한국학교: 주일 오후 1시



562-455-7343, 760-956-9191

vvtgchurch@gmail.com

10570 Phelan Rd., Oak Hills, CA 92344



## 빅토밸리 소망교회

Victor Valley Hope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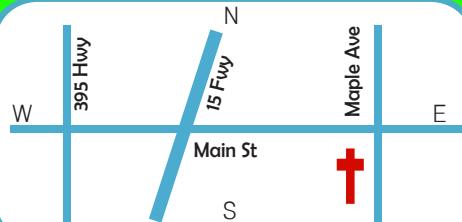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빅토밸리 소망교회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는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함께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전 11시 (본당)  
목요일 밤 예배  
목요일 오후 7시(교육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31)

담임목사: 양성은 (Sung Eun Yang) ☎ (213)500-8271

▣ 본 당: 9280 Maple Ave, Hesperia, CA 92345

▣ 교육관: 9367 Maple Ave, Hesperia, CA 92345

#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이데저트 중앙교회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엘 2:18)



## 예배 및 집회시간

찬양 및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화,목,금, 새벽 5:30

담임목사 악력  
광주제일고등학교(제11회)  
American Christian College(B.A)  
마주출신 신학대학원(M.Div)  
Calvin Theological Seminary(Th.M. Studies)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D.Min. Studies)  
Life University(Th.D)

HI DESERT KOREAN COMMUNITY CHURCH  
13878 Apple Valley Rd, Apple Valley, CA 92307  
전화번호(Office): 949-325-5497 / (담임목사Cell): 714-466-0887  
E-mail: infor.hidesertkorean@gmail.com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RPCA)



빅토밸리  
복음교회

Victor Valley Gospel Church



주일예배

수요기도회

금요새벽기도

오전 11시

오후 7시

오전 6시

공로목사 / 강성수  
(562)260-8083

담임목사 / 이영근  
(760)265-5690

협동목사 / 홍정택  
(909)913-4159

2023년 표어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 CONTACT US

9191 Deep Creek Rd.

Apple Valley, CA. 92308

(760) 265-5690

withlyg1128@daum.net



빅토밸리 복음교회  
Victor Valley Gospel Church



하이 데저트

# 행복한 교회

High Desert Happy Church

비전: 주님의 제자되어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행전1:8)



담임목사 김상대

풀러선교대학원 선교목회학 박사(D.Min)  
미주장신대 목회학 석사(M.Div)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  
서울장신대 신학교 졸업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목사안수)

예배 및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1시 AM	본당
금요 성령집회	7시 PM	본당
새벽기도	6시 AM(화~금)	본당
구역모임	매월 둘째 주	구역별

sangdaekim99@gmail.com / 홈페이지 www.hdhck.net/714-476-9165

## 선교지 후원을 위한 행복 바자회

### 밑반찬

고추장아찌	무우말랭이
두부조림	우엉볶음
묵	콩자반
진미채 무침	돼지불고기
잡채	만두
멸치볶음	부침개
오뎅볶음	김밥
장조림	등 많은
김치	밑 반찬이
오징어 젓갈	준비됩니다

### 곡류 및 기타

속청콩	진미채
깐녹두	다시마
찹쌀	새우젓
현미	다시멸치
야생찹쌀	볶음멸치
팥	소금
통보리	당면
참깨	고추장
엿기름 가루	된장
찹쌀가루	제30마리 젓갈
묵가루	고춧가루

당일날 오신 모든 분들께 정성스러운 점심 육계장을 대접합니다. 많이 오셔서 즐겁고 행복한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일시: 2023년 10월 28일(토). 오전10 ~ 오후3시

장소: 하이 데저트 행복한 교회 친교실 / 문의: 반성례 권사 949-742-2021

교회 주소: 7898 Phelan Rd, Phelan, CA 92371



# 프로원 부동산 & PROPERTY MANAGEMENT / 공증(NOTARY PUBLIC)

## 주택/땅 매매

- 주택/모빌홈/땅 좋은 가격으로 판매해 드립니다
  - 일반, 은행매물, Short Sale, HUD homes
  - 기도원 / 농장 / 상가 건물 / 비지니스
- 현재 좋은 매물을 시장에 나오는 대로 바로 판매되고 있으니 전화주시면 새로나온 좋은 매물만을 골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원 부동산은 매일 매일 매물로 나오는 주택 및 땅들을 하나 하나 분석하여 위치가 좋으면서 가격이 좋은 매물들만을 엄선하여 소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하고 계시는 주택/땅의 현재 가치 혹은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땅의 적절한 가격에 대해 문의하시면 무료 상담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렌탈 홈 구입 및 관리

- 렌탈인으로 최적인 주택 및 모빌홈을 구입하여 드립니다
- 좋은 Tenant를 찾아 렌트수금 및 입금하여 드립니다
- 렌탈 흠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관리 및 해결하여 드립니다

지난 15년간의 경험으로 경험 많은 미국인 핸디멘들과 함께 집주인들께서 신경안쓰셔도 되도록 잘 관리하여 드립니다



해나 김 ("Hannah" Kyung M. Leekim)  
Broker Assistant  
DRE License #: 02076078  
Cell. Phone: (760)881-7411  
이메일 hannah@proonerealty.com

### 빅토밸리 전 지역

- |               |                |
|---------------|----------------|
| * Phelan      | * Adelanto     |
| * Pinon Hills | * Hesperia     |
| * Victorville | * Apple Valley |



3936 Phelan Rd. Suite B14  
Phelan, CA 92371  
(다운타운 맥도날드 길 전너편)

대표전화 (760)868-5555

Broker: "Jay" Hyung S. Song  
DRE License #: 01367767  
(213)389-0123 / jay@proonerealty.com



## 히스페리아 연합감리교회

18623 Main St. Hesperia, CA 92345 / (678) 984-7179

선명하고 깊은 말씀, 뜨거운 찬양과 기도, 즐거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예배!

영어회중예배: 주일 오전 9시

한국회중예배: 주일 오전 10시30분

Youth 모임: 금요일 저녁6시

무료음악레슨: 화, 목 저녁 6-8시



### 이종구 담임목사

- 감리교신학대학교 및 본대학원
  - Emory Univ.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 Drew Univ. 신학대학원 신학석사(STM)
  - Claremont 신학대학원 신약성서 철학박사(PhD)
- (요한계시록과 영지주의 전공)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다.



**나눔동산교회**  
NANUM DONGSAN CHURCH  
4166 Nielson Road,  
Phelan, CA 92371  
(760)221-8379

주일예배: 1부 - 오전 8시, 2부 - 오전 10시  
EM 악센트: 주일 오전 10시, 토요 특별모임(격주)  
수요성경공부: 오후 7시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시  
도전! 성경일독반(카톡방 운영)

담임목사: 류 창렬  
[www.nanumdongsan.org](http://www.nanumdongsan.org)

개혁장로회한미연합총회(RPCA)  
**빅토밸리  
복음교회**

주일예배: 오전11시
수요예배: 오후7시
금요새벽기도: 오전6시

공로목사: 강성수  
담임목사: 이영근  
협동목사: 홍정택  
9191 Deep Creek Rd Apple Valley  
CA 92308 (Tel) 760/265/5690

**2023 목사회 임원**  
회장: 김송국 목사  
총무: 류창렬 목사  
회계: 홍정택 목사

**목사회 가입문의**  
760-887-4848  
760-221-8379

**주의사랑선교교회**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760)694-3735,(714)932-8993

영성적 삶을 드는 주의 사랑 공동체

주일 예배: 평일 12시  
법률 상담: 10시~5시(월~금)  
 YouTube 꿈꾸는 일령맘

공동담임: 백 성연 & 백 석영 목사

**새생명한인교회**  
NEW LIFE KOREAN CHURCH  
16165 Walnut St.  
Hesperia, CA 92345  
(760)887-4848, (760)887-6648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EM Ministry(Pastor Ken.) 주일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시  
\*영성공부: 수, 목, 금요일  
\*증보기도: 수요일 오후 3시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시

담임목사: 김 송국

**열린문 기도원**  
OPEN DOOR MISSION CENTER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5705 Stone Basin Rd.  
Phelan, CA 92371  
(760)249-5858, (213)840-7757

\* 주일예배: 오전 10시  
담임목사: 우 정은

\* 10번/210번에서 오른다가 15번  
북쪽으로 오다가 138번에서 내려서  
좌회전4.50마일 Stone Basin에서  
좌회전하여 들어오시면 우측에 열린문 기도원이 위치합니다.

쉼과 은혜와  
나눔이 있는곳

# 필랜나눔동산교회

나눔동산교회 3대 비전 \*섬기는 교회 \*브릿지 교회 \*선교적 교회

## 예배 시간

주일 예배: 1부 8시/ 2부 10시

학생부 예배: 주일 10시, 토(격주 12시)

수요 예배 및 중보기도: 저녁 7시

토요새벽기도회: 새벽 6시

도전! 성경일독 카톡방: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늘 기원합니다.

나눔동산교회 EM 학생부(초, 중, 고)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조인완 전도사 (In Wan Cho)

Biola University, Christian Ministries Major BA

Fullerton College, Child Development AA

청소년 신앙 교육 및 상담과 특별활동 사역에 탁월함

4166 Nielson Rd, Phelan, CA 92371

760-221-8379



담임목사: 류창렬 목사



[www.nanumdongsan.org](http://www.nanumdongsan.org)

건강한 노후를 위한

# 메디케어 보험

메디케어 신규가입 및 변경 도와드립니다.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8년생 신규 가입자들을 위한 신청과 가입
- /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Part C (HM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 오바마케어보험

샌버나디노 지역 전문

- 소득에 따라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
- 혜택 비교 분석 후 적합한 플랜 선택
- 주치의 선정과 병원 선택 도움



하이디 김

760-239-9006  
Lic# OH94085



제인 린

760-364-0818  
Lic# OD60292



해나 백

714-290-4870  
Lic# OG78292



안미숙

213-477-3225  
Lic# OM3872



양유신

909-260-4861  
Lic# OG79468



유민예

213-407-8425  
Lic# OK36921



테레사 한

714-345-4791  
Lic# OM81950



그레이스 황

213-407-8425  
Lic# OK36921



유니티 • 종합보험

15423 Anacapa Rd, Victorville, CA 92392 (서울 가든 코리아 바베큐몰)

# Contents



## 차례

- |                            |          |
|----------------------------|----------|
| 24. 용감한 소년, 빌리             | : 최경송 박사 |
| 25. 정다운 음악산책 : 가을          | : 황미재 고문 |
| 26. 책 소개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 | : 편집실 제공 |
| 30. 시가 있는 마을: 선인장          | : 정종아 사모 |
| 31. 잊혀진 계절                 | : 배상환 시인 |
| 32. 세월을 의미있게 사는 지혜 (2)     | : 민병열 목사 |
| 33. 사라지지 않는 알량한 갑질         | : 임세봉 수필 |
| 34. 언어와 악마                 | : 조현용 교수 |
| 38. 영화 이야기 - 사운드 오브 프리덤    |          |
| 40-41. 알림게시판               | : 편집실 제공 |
| 42-44. 한인업소록               |          |
| 45. 생활영어, 유머 & 사자성어        | : 편집실 제공 |

발행처: Hanmi news

발행인: Daniel Lee

고 문: Abraham Choi, Ph.D., L.Ac.

Mijae Anna Choi

기 자: Lauren Lee

편 집: Daniel Lee

위 원: Rebekah Lee

필 진: 민병렬. 배상환. 조현용. 정종아

임세봉. 최경송, 황미재

Hanmi News, Korean-American Magazine is published monthly by Hanmi News, and distributed throughout the Southern California for Korean-Americans.

Advertising space reservation deadline is the 15th of the month. All materials for noncamera-ready ads are due on that date.

Camera-ready artwork is due on the 15th of the month. No reproduction of printed material is permitt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06 by Hanmi News

## 한미 뉴스 Hanminews

Tel : 760-968-7148

info@hanminews.com

9777 Maple Ave.

Hesperia, Ca 92345

광고에 대한 모든 내용 및 컨텐츠는 해당 비즈니스 업체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한미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른 광고의 거부권한이 있으며, 이미지 권한이나 내용 사실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한미 뉴스는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글, 기사, 반가운 소식, 타의 모범이 될만한 인물 등 알찬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60-968-7148

한인업소를 이용합시다

# Unicare Healing Center

몸과 영혼의 치유센터

## 최경송 박사:

한의과 대학. 대학원 교수

한국에 최초로 해독요법 소개

기생충과 독성물질 해독전문가

특수한 진단법 개발 및 임상

한국의 숨은명의 50인

대체의학의 권위자 피선

## 학위논문:

암에 대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및 대체의학 비교연구

저서 및 역서

사람을 살리는 대체의학

사람을 살리는 해독요법

역서: 암 낫고 말고

"The Cure for All Cancers"

19916 Grande vista st., Apple Valley, CA  
[www.unicarehealingcenter.com](http://www.unicarehealingcenter.com)



네가 낫고자 하느냐?

## 특수 진단 및 치료

천연치료 임상의 결정체!

몸과 영혼의 문제점 진단치료

뇌영양소 진단 및 처방

암, 당뇨, 관절염, 고혈압,

심장병, 기타 각종 난치질환

비타민, 미네랄, 해독치료

## 부대시설

기도실 & 찬양과 예배실

아름다운 산책로

뉴스터트 건강 강의실

유기농 채소밭 자연체험



909-270-6338

909-270-6407

## 명의 최경송박사를 만나세요



최경송박사 (Abraham Choi, Ph.D, L.Ac)

15995 Tuscola Rd. Suite 201, Apple Valley, CA 92307

Unicar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각종 통증 치료

목. 어깨. 허리. 팔. 다리 & 각종 통증

각종 한방 치료

암. 증풍. 통풍. 당뇨. 관절염. 뇌질환. 고혈압. 변비

심장병. 피부질환. 간기증. 면역질환. 기타질환

각종 해독 치료

간. 신장청소. 곰팡이. 기생충. 바이러스 디톡스 전문치료



760-242-2400

# 제 50 회 코리안 퍼레이드

▶ 10 월 14 일 ( 토 ) 오후 3 시부터 LA 한인축제 하이라이트

## ▶ 다문화 커뮤니티 행사로

제 50 회 코리안 퍼레이드 , 이민사 영웅 · 참전용사들 올림픽가 대행진 이끈다 . 미주 한인사회의 최대 잔치 인 LA 한인축제의 하이라이트 ‘코리안 퍼레이드’ 가 뜻 깊은 50 주년을 맞아 오는 10 월 14 일 ( 토 ) 오후 3~5 시 LA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 블러버드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

미주 한인사회 최대 , 최고의 언론 한국일보 미주본사 가 주관하는 올해 제 50 회 코리안 퍼레이드는 1903 년 갤릭호의 이민 선조들로부터 출발한 한인 이민 디아스 포라가 고난과 땀 , 눈물을 넘어 꿈과 희망으로 다져온 미주 한인 이민 120 주년과 혈맹관계인 한미동맹 70 주년을 맞아 한인 이민사의 소중하고 의미 깊은 역사를 되새기고 희망찬 미래로의 새롭고 당당한 전진을 다짐 하는 ‘축제이자 세기의 대행진’ 으로 펼쳐집니다 .

## ■ 제 50 회 코리안 퍼레이드

▲ 일시 : 2023 년 10 월 14 일 ( 토 ) 오후 3~5 시

▲ 장소 : LA 한인타운 올림픽 , 버몬트 ~ 웨스턴 구간

도어팩익스프레스 

미 전역 UPS보다 저렴한 UPS택배

실고빠르

UPS 택배

배송

IN USA

빠르게! 정확하게! 부담없이!

Next Day  
Delivery  
50% 싸게

찾아가는 UPS 택배 3 박스 이상 무료 픽업

한국-→미국-→캐나다,  
중국에서 택배 받으실 때  
보낼 건 보내고 받을 건  
받으세요 싸게 싸게

DoorPak Express 빅토빌점

213-880-3027

11560 US-395,  
Victoville, CA 92392  
Kenneth1592@yahoo.com

# 김제인 부동산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인

주택, 유닛, 땅, 농장, 커머셜 매매

REDPOINT  
REALTY

골든어워드수상

온라인경험으로 여러분의 재산증식을 위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BRE #01314435  
Since 2000



리스팅 전문!

Tel: 213.272.2777 로 전화 주세요 . kimjane5@yahoo.com

필랜, 피논힐, 히스페리아, 빅토빌, 옥힐, 애플밸리, 아델란토, LA, OC, CA 전지역

**애플밸리 농장**

품목 : 대추, 매실액기스, 생꿀, 도라지와

\* 산지직송 하치야 (곶감용) 감  
대량주문 받습니다.  
(10월말부터 공급예정)

\* 생대추 주문받습니다.

Apple Valley Farm  
EAT WELL LIVE WELL

애플밸리 농장 Tel 213-292-1338 Tel 301-233-6535

완벽시공의 대명사

# 백스 조경



- \* 대형 중장비 보유
- \* 땅 정지작업(클린업)
- \* 콘크리트 블럭
- \* 팬스 / 게이트
- \* 정화조 설치
- \* 조경 공사 일체



대추나무  
팝니다!

라이선스 (Class B #70132) & 본드 있음  
(714)797-9000/ (310)933-0005



## Oasis Jujube Farm

26348 Desert View Ave, Apple Valley, CA 92307

생대추 따러  
오세요!

오아시스 대추 농장 대추

대추, 썬대추, 대추엑기스  
뛰어난 당도와 풍부한 과육,  
오랜 전통의 맛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의서인 <동의보감>에는  
"잠이 오지 않을 때 대추를 끓여 마시면 잠이 잘 오고 위장 기운이 편안해진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과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며,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 간기능, 시력에 도움이 되고,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아시스 대추 드시고 늘 건강하고 젊게 사세요.

Bear Valley 와 Apple Valley 삼거리에서 18 번 동쪽으로  
3 마일가면 Pioneer Rd 에서 우회전하여 0.6 마일 오세요



## 형제약국

김용현 & 김용민 약사

We accept most major insurance  
including IEHP, Medi-Cal, Medicare.

- 처방약에 대한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
- 약사가 직접 무료 배달과 상담을 해드립니다.
- 백신접종 합니다.
- 마스크, 손세정제, 라텍스 장갑 판매합니다.
- 약국에 오시면 드시는 약 전부를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BROTHERHOOD  
PHARMACY**

1040 S. Mt. Vernon Ave. Suite E

"Bank of Hope" 옆에 위치

Colton, CA 92324

Tel: 909-222-4884 fax: 909-222-4921  
[brotherhoodpharmacy@gmail.com](mailto:brotherhoodpharmacy@gmail.com)



**NEWST★<sup>®</sup>**  
Realty & Inv. **뉴스나부동산**<sup>®</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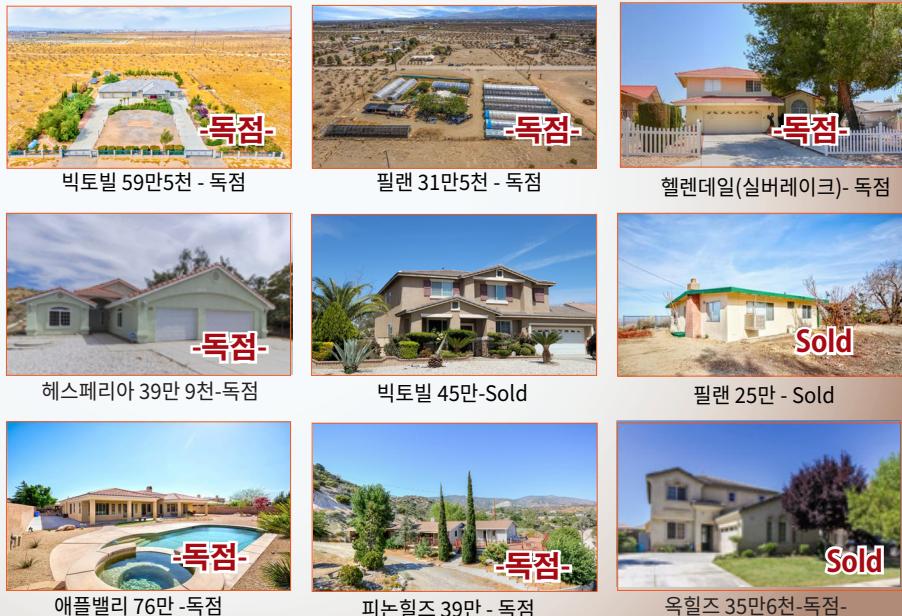
BRE#: 02025147

빅토빌, 애플밸리, 필랜, 루선밸리, 헤스페리아, 아델란토

“넘버 1 부동산 쪽집게 에이전트 로즈 김”



로즈 김 ROSE KIM  
714-247-9100



## Carriage House Antiques

We have  
something  
for everyone!

**Shabby Chic**  
**Rustic**  
**Estate Furnishing**  
**European Furniture**  
**Home Decor**  
**Victrolas**  
**And More**

Come Enjoy!  
Open 7 days a week  
**760-948-5577**

8,000 스퀘어피트 넓은 매장에 비치된 고풍스럽고  
고급스러운 앤티크 보화들을 샤피하세요! 맛있는  
차와 쿠키가 마련된 공간에서 휴식도 즐기시구요!

*From Rustic to Refined*

Facebook: CarriageHouseAntiquesHesperia  
Instagram: Carriagelhouse\_antiques

**11370 Hesperia Rd  
Hesperia, CA 92345**

Bear Valley에서 남쪽 방향으로 1마일에 위치



# 부동산전문인 TOOLIN \* 하이데자트

## \* 샌드라 영 김 \*

필랜. 빅터빌. 헤스페리아.  
옥힐스. 애플밸리. 피온힐스

### 현재 리스팅 접수중

현지 상주 거주 예전트로

인터넷 시스템과 소셜 미디어 등 여러 광고 매체를 통해  
만족하고 빠른 결과를 드리며 항상 노력하며 업데이트된  
지식으로 현재 12년째 이 지역만을 전문으로 집, 땅, 상가,  
사업체등 이주, 은퇴, 투자에 관심있는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ince 2000

LIC#01455109



Top producer in 2018, 2019, 2020, 2022

# 714-749-4988

### BONELESS CHICKEN

① ORDER 1 flavor	<b>11.99</b>
② ORDER 2 flavor	<b>20.99</b>
③ ORDER 3 flavor	<b>29.99</b>



### WHOLE CHICKEN

Half 1 flavor	<b>15.99</b>
Whole 2 flavor	<b>29.99</b>

### WINGS CHICKEN

	5pcs 1 flavor	10pcs 1 flavor	20pcs 1 flavor
Fried (plain)	<b>7.99</b>	<b>13.99</b>	<b>27.99</b>
with Sauce Wings	<b>8.99</b>	<b>15.99</b>	<b>29.99</b>

# 두존치킨

TWO ZONE TWOZONE Chicken



**TWOZONE**

Hesperia Store  
14380 Main St. #101  
Hesperia, CA 92345



Take Out

(442) 800-3687

ONLINE ORDER : [WWW.TWOZONE-HESPERIA.COM](http://WWW.TWOZONE-HESPERIA.COM)



Take Out  
(442) 800-3687



J.S. **핸디맨** HANDYMAN

각종 집수리, 인테리어

페인트.플러밍.마루.문짝.윈도우.부엌개조.콘크리트.루핑, 기타

**Laminate & Tile, Flooring / 키친 카운터 탑**

패리오, 마루 전문 / 랜트하우스 수리, 저렴  
그라지 도어 수리 / 각종 전기공사  
카운터탑 인스톨 해드립니다

626.277.9113

대표: 서철호

760.713.9648

빅토밸리 전지역, 바스토우, 랜초쿠카롱가, 리버사이드 기타지역



**BR TAX SERVICES**  
HANMI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까 ?  
세금관련 문제가 있으십니까 ?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

9777 Maple Ave. Hesperia, CA 92345 [ 메인과 Maple]  
760-968-7148 로 전화 주세요 . Brtaxservices20@gmail.com



**리모델링** **샤인페인팅**  
**REMODELING/SHINE PAINTING**

페인트 IN & OUT/커머셜빌딩 하우스 레스토랑 리모델링  
크라운 몰딩/마루 플러밍/루핑(바로믹스)/필름난방(온돌)  
전기/페리오/콘크리트/브릭/스톤/스타코/인스페션잡

☞ **951.205.8235** (무료견적)

Email:anvolo2020@gmail.com

대표 안창현

Lic.#871078/Gb.Lic.#950580/#435421

**• Interior/Exterior Remodeling:**

내부/외부 공사, 주택 개조, 내부구조 변경.  
리모델링 전문: 부엌 cabinet, 좌장실, 옥조, 바닥,  
Kitchen Cabinet, Counter Top & Island, Bathroom, Living Room, Dining Room, Entertainment Room.

**• Residential/Commercial:**

주택, 식당, 카페, 사무실, 빌딩, 공장.

**• 페디오커버(PATIO COVER):**

Pergola, Gazebo, Canopy, Carport.  
(Also Refurbish/Repair/Repaint)



**• 썬룸(SUNROOM)/창고(SHED):**

**• 데크(DECK):**

**• 페디오커버/썬룸/창고 위 태양광패널 설치.**



**• Design/Plan/Permit**

디자인/설계/퍼밋/시공

Victoville • Hesperia • Phelan • Apple Valley  
Lucerne Valley • Adelanto • High Desert • Barstow  
• 남가주 모든 지역 등



스카이탑은 고객의 가치와 자산을 높이는데  
기여를 다하고 있습니다.

스카이탑 건축

In•Outdoor Build & Energy Solutions

Lic# 1054953

[www.skytopcons.com](http://www.skytopcons.com) / [johns@skytopcons.com](mailto:johns@skytopcons.com)

**818.638.7292 / ext 1001**

**760.486.2840 / Direct**

**John Suk (존 썩)**

## 시니어 메디칼 무료 신청 및 서류 관리대행

### 시니어 메디칼의 인컴자격 변화

자격 - 인컴 월 개인 \$1,677, 부부 \$2,269  
자산 개인 \$13 만불, 부부 \$19 만 5 천불

**위 자산외 은행 saving 의 잔고를  
연금 saving 으로 이전해 드린 후 신청**

- \* 인컴 자격으로만 메디칼 신청가능
- \* 배우자중 한사람만 메디칼 신청가능
- \* 덴탈플랜 가입으로 인컴 낮추고 메디칼 신청
- \* SSA 소살연금 신청
- \* 메디칼 재심사 갱신서류 대행

### KCSS 시니어서비스

Korean Community Senior Services

**323.628.5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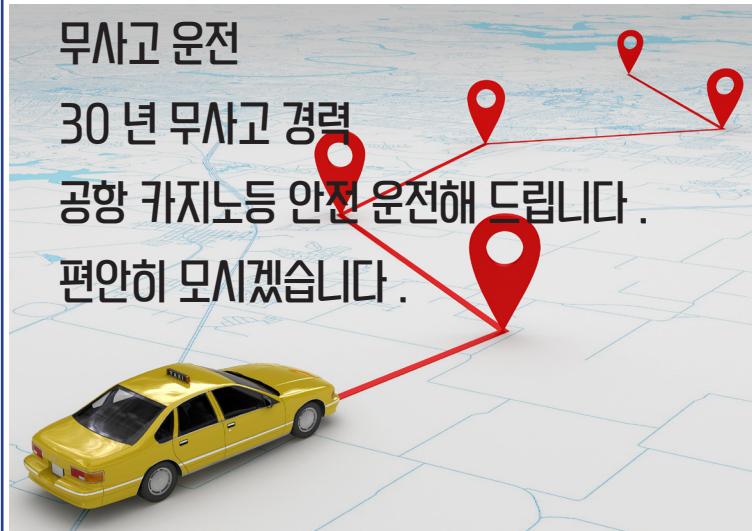
## 기쁨서비스

무사고 운전

30년 무사고 경력

공항 카지노등 안전 운전해 드립니다.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대표전화 760.701.2819**



**TOP** 부동산

9035 Sheep Creek Rd, Phelan, CA 92371

W	Phelan Rd	E
Sheep Creek Rd	<input checked="" type="checkbox"/>	Johnson Rd

LA - 1시간반, 전원생활

주택/기도원

상가

농장

부동산관리

땅.땅.땅

정직&성실의 대명사, 케니김.. 필랜 17년 거주 부동산 달인



주택 , 농장 , 상가

커머셜 땅 , 공장부지 , 투자상담

\* 리스팅 하시면 꼭 팔아 드립니다.



(Lic:01842029)

케니 김 Broker/CEO

Tel: 760-868-0100 Cell: 714-606-5662 E-Mail: top0923@gmail.com

한미뉴스는..

최고의 정성 으로 만듭니다!,

최고의 광고효과를

자랑합니다!

760-968-7148

Denture: Same day service

틀니

Implant over denture

부품교체 , 리라이닝 , 수리  
기술상담해 드립니다

틀니 불편하신 분 전화주세요!!!

틀니 denture 로 고생하시는 분  
전화 주시면 도와드립니다 .

Same day repair and reline  
Daniel Kang 714-414-6502

- \* 틀니 수리
- \* 틀니 리라인
- \* 임시치아(치아한개)
- \* 이갈이하시는분Night guard
- \* 치아표백용Bleaching tray
- \* 치아교정용 Tray(Clear retainer)



9355 Chapman Ave, #106, Garden Grove, CA 92841  
danielwkang@hotmail.com Call 714 - 414 - 6502

Hesperia, Barstow  
Victorville, Apple Valley  
High Desert 모든 지역을  
Cover 합니다



# lee's Painting

무료견적 – 전화주세요 !!!

Hyun Lee 를 찾아주세요 !



애플밸리 거주

310-259-4490

# COWAY

코웨이에서 하이데저트 거주 고객님들께 자가 관리형 렌탈 서비스를 시작 합니다.

필랜, 헤스페리아, 빅토빌, 애플밸리, 루선밸리, 바сто, 오크힐, 헬렌데일, 힙클리

**NEW  
PRODUCT**



자가 관리형

언더싱크 정수기  
P-160AL

대형공기청정기  
AP-3018B

트리플파워  
AP-2318D

멀티액션  
AP-1516D

슬림형  
AP-1018F

공기청정기	약정	등록비	
		\$100	\$0
AP-3018B	6년	\$50.99	\$52.99
	3년	\$60.99	\$63.99
AP-2318D	6년	\$38.99	\$40.99
	3년	\$47.99	\$50.99
AP-1516D	6년	\$32.99	\$34.99
	3년	\$42.99	\$45.99
AP-1018F	6년	\$29.99	\$31.99
	3년	\$36.99	\$39.99
언더싱크	6년	\$24.99	\$26.99
P160AL	3년	\$32.99	\$35.99

\* Tax not included ACH/CCR Rate



제품 무료설치+ 필터와 점검도구 무료 택배 배송, 배송 알림 서비스(문자, 이메일), 자가관리 안내 영상으로 스스로 손쉽게 필터 교체, 계약기간 내 무상 A/S

자유롭게 일 하실 세일즈맨 모집 합니다. 제품 문의 760-780-9315

(단, 해체/이전 설치 및 고객 부주의시 유상)

믿고 맡길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

DRE 01274985

주택, 농장, 땅, 비지네스 파시고 싶으신분 or 사고 싶으신분

하이 데저트 전지역을 커버합니다

21년 경험의 베테랑 에이전트



Interstate Realty - 미주부동산



SOLD  
Apple Valley  
9ac, 우물  
3/2, 2000 sf



Escrow  
Pheasant  
9.4ac  
3/2, 2550 sf  
\$46만



SOLD  
Victorville  
3/3, 3145sf  
\$37만8천

Lucern Valley  
피자가게  
\$100K  
월세상 \$35K+  
월세수익 \$20K  
건물도  
사실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이나 건물 페이먼트를 못내고 계십니까 ?

집이나 건물을 은행을 차압당할까봐 걱정 되십니까 ?

지금 문의해 주세요 .

제임스 권 James Kwon

213.550.7090



K Natural USA

한삼인 유에스에이



L.A. 올림픽과 하비드 (323)737-8888  
3130 W. Olympic Blvd. LA, CA 90006  
O.C. 한인회관앞 (714)271-8784  
9852 Garden Grove Blvd. GG, CA 92844  
두곳에서 만나보세요

당뇨에는 봉잎차 !



감기에는 도라지차 !



열악에는 맹문동 !

위장에는 칡차 !



세개의 플렉스 카드가 다 가능합니다.  
클리버 케어 카드 . 센트럴 헬스 케어 카드 .  
한미 메디칼 케어 카드 .

# 엄마! 차세대인 제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환자를 위해 진심을 다하고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자체 플랜까지 개발하고 젊은 의사들이 노력하는 IPA를 찾았어요!

## 엄마가 선택한 바로 넥스트 IPA였어요!

### 넥스트 IPA 회원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 **공기 청정기**  
대기 중의 미생물 및 기타 미립자로 부터 천식 및 기타 호흡기 합병증 예방 및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종합비타민주사(월 1회) 및 B12주사**  
비타민 C, 활성비타민 B, 미네랄 등의 각종 미세 영양소를 체내에 맞게 공급해 줌으로써, 저하된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켜 신체 내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혈관영양 주사입니다.
- **웰빙 프로그램**  
근육증가, 지방감소, 허리 통증예방, 요실금 예방을 위한 웰빙 프로그램입니다.
- 실속있는 다양한 혜택을 넥스트 회원분들에게 제공 해 드립니다.

### 잘 따져도 보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결정해야죠!

#### ■ 보험회사?

보험회사마다 다른 혜택. 나에게 도움이되며 가장 적합한 보험회사의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 주치의선생님?

나를 가장 잘알고 나를 위해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해주는 주치의 선생님의 선택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 메디칼그룹?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전문의에게 진료 받도록 리퍼해주는 메디칼그룹.  
그리고 어느지역을 어떻게 진료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넥스트 메디칼 그룹은 빅토빌에서 오렌지카운티까지  
남가주의 더 넓은 지역을 더 섬세하게 진료합니다.



# 메디케어

65세

이상 되시나요?  
메디칼 있으십니까?

오랜 경험과 완벽한 실력을 가진 메디케어 에이전트를 만나면  
의료혜택에 관한 모든 미국 정부 혜택을 처음 신청부터 끝까지  
본인 부담없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샌버나디노 지역 전문

- 메디케어 플랜 갱신 기간 10/15 ~ 12/7

ICEP

65세가 되어 처음 메디케어 A,B를 받으시는 분  
(생일 3개월 전부터 가입 가능)

SEP

메디케어/메디칼이 둘다 있으신 분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 거주지(County)가 바뀌신 분  
직장 보험 종료 후 메디케어 PartB를 처음 받으시는 분  
처방약(Part D)구입시 Extra Help(보조)를 받으시는 분

혜택

본인 부담금 없이 의사진료, 입원, 수술, 약 보험, 안경, 보청기, 침, 헬스클럽, 해외 응급실, 발기부전 치료제, 택시 무료 서비스, 치과(임플란트, 틀니, 신경치료 포함)등...

어르신들과  
함께한 시간 30년  
함께할 그 이상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실버시티 보험은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합니다.



- ✓ Plan에 따라 혜택이 다르므로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 ✓ 무료로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 ✓ 주소: 16174 Main St. Hesperia
- ✓ 이메일: mhdd142@hotmail.com



**760-780-5990**  
Hyun Ja Han (한 현자)  
**CA Lic. #OG72353**

우리는 귀하의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메디케어 상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귀하의 지역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상품으로 제한됩니다. 모든 옵션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Medicare.gov 또는 1-800-MEDICARE에 연락하십시오.



## 용감한 소년, 빌리

최경송. 한의학 박사

빌리 베스트는 화학약물 치료를 거부하고 현대의학으로부터 도망쳐 버린 용감한 소년이다. 그가 림프종에 걸린 것은 어린 나이 12세인 1994년이었고, 그 끔찍스럽게 고통스러운 화학약물 치료를 피해 집을 뛰쳐나온 것이 그 해 10월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그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2개월여의 화학약물 요법을 통해 공포와 통증만을 경험했던 그가 현대의학의 치료법을 거절하고 1년 후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대체요법 덕분이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 뿐이었어요.” 그는 <더 엔터프라이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당시 의사의 결정은 이 소년이 화학요법을 받지 않으면 곧 죽음에 직면한다는 것이었다. 2개월여의 화학약물 치료 후 의사들은 같은 치료를 장차 4개월 동안 더 해야 살아날 수 있다고 귀띔을 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암이 다시 재발한다는 그 정중한 경고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린 빌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그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는 치료를 받느니 차라리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을 때, 부모님은 아들에게 화학요법을 받지 않는 대신 다른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빌리는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치료는 제 몸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싫습니다”라며 집을 나갔다.

더플 백을 등에 메고 고향인 메사추세스의 노웰을 출발하여 멀리 텍사스로 향하는 기차를 탔다. 그러나 3주가 지나자 객지에서의 생활을 견딜 수가 없었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가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암은 재발되어 있었다. 다행히 부모들도 더 이상 빌리에게 화학요법을 권유하지 않았다. “아이 아빠와 저는 빌리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동의하고 화학요법은 이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안을 찾기로 했다.

그들이 소개받은 대체의학이란 것은 아들과 부모 모두에게 생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돌팔이 민간요법이었다. 실망 반 기대 반으로 맨 처음 시작한 대체치료는 장뇌와 질산과 유기소금을 혼합해 추출한 항암 약이었다. 이 약은 캐나다의 한 의사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혈관과 림프관내의 비정상 세포를 죽이고 인체 면역성을 높여주는 자연 치료약이었다. 빌리는 그 약에 또 다른 인디안 항암약초를 동시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 인디안 약초에는 혈액을 정화하는 해독성분이 들어 있었다. “이 치료방법은 인체의 면역성을 길러 병과 싸우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빌리도 같은 생각이었구요.” 빌리의 어머니 수잔의 말이다.

그래도 그 당시 빌리는 암이 재발하면 언제라도 다시 화학요법을 받아야한다는 각오는 하고 있었다.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그런 각오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곤한지 몰라요. 대체요법 치료 후 다행히 아직까지 부작용이나 재발이 없습니다.” 얼마 후 메사추세스의 보스톤에 소재한 다나파비 암 연구소의 클립 다케모토 박사는 “암 증상이 없어졌다”고 선언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99년 9월 5일 노동절 휴일기간에 캘리포니아의 유니버설 시티에서 행해진 전국 암 컨벤션에서 빌리는 자신의 건강과 대체의학의 혜택을 증언하여 참석자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그의 불만은 자신을 치료해 준 자연약초들을 미식품의약국에서 정식 암치료제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식품의약국의)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에게 양방 외에도 다른 치료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수많은 약초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현대의학을 거부하고 자연치료를 선택하여 목숨을 건진 한 청년의 모습에서 비장감마저 흐르고 있었다.

나는 간증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온 빌리와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수많은 의사들 앞에서 자신의 자연치료 체험담을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이 기뻤다는 것이다. 그와 나눈 대화 중에, “자연치료가 모든 암을 치료해 주지는 않는다. 다만 FDA가 치료의 가능성을 양방에만 한정하지 말고 자연치료에도 연구와 임상과 치료의 기회를 확대해 주었으면 한다”는데 피차 간의 공감을 확인했다.

‘과학’과 ‘과학적’이라는 말은 엄연히 다르다. 과학은 학문의 분야이지만, 과학적이라는 말은 그 학문을 통한 연구과정과 실험의 결과를 말할 때 표현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과학적’이라는 말은 꼭 ‘과학’일 필요는 없다. 과정과 결과가 과학적이라고 그것이 반드시 과학일 수는 없다는 뜻이다. ‘과학’의 기준이 달라지면 그 ‘과학적’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과학적”이라고 해서 모두 진리는 아니다. 현대 과학이론도 끊임없이 발전하며 변해오지 않았는가!

이처럼 현대의학의 화학약물치료나 후꾸시마 처리수도 흐날 기준이 달라지고 과학이 더 발달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결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만 지금 보다는 더 나은 것이 없는 시기에 살고 있을 뿐이다.

황미자(ホウミザ)의



## 정다운 음악 산책

10월



<현제명(玄濟明, 1902~1960)>

### 가을 Autumn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잎은 붉은치마

갈아 입고서

남쪽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모아

봄이오면 다시오라

부탁하누나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같구나

추운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가을’은 백남석 작사, 현제명이 작곡한 동요이다. 1931년에 발표되어 1936년 현제명이 펴낸 어린이 찬송가에 처음 실리었다. 현제명씨는 <고향생각>, <그집 앞>, <나물캐는 처녀>, <희망의 나라로> 작곡자로 유명하며 일제 강점기에도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가, 테너 성악가, 가곡 작곡가이며 편곡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는 연희전문대학에서 음악교수로 봉직하였는데, 영문과 교수인 백남석에게 가사를 부탁하여 작곡한 곡이 바로 ‘가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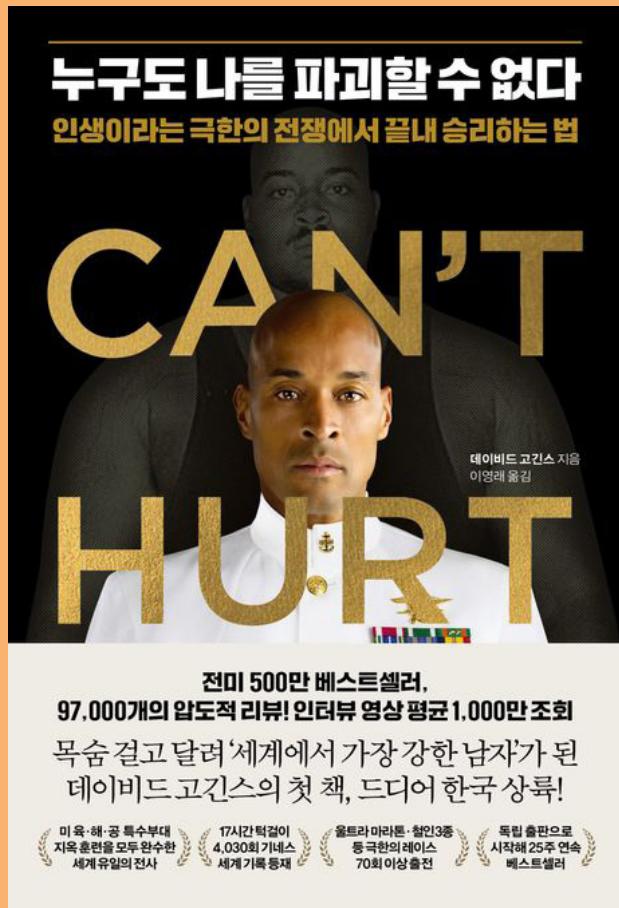
이 노래의 1절 가사를 아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2절 가사를 살펴보면 참 생소하며 깊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작사자의 신앙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는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 대복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훗날이 곡이 교과서에 실리게 될 때 원곡의 가사를 “대자연이 내려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가을을 노래한 곡들을 보면 거의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노래한 곡들이 참 많다. 하지만 이 곡 ‘가을’은 아주 맑고 순수하며, 대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어 어린이 찬송가 책에 실리게 된 것이다.

“가을”은 온 국민이 즐겨 부르는 대표적인 가을 동요이지만 성인들의 마음도 동심(童心)으로 돌아가게 하여 어릴적 추억까지 생각나게 한다. 같은 리듬이 여러번 반복되며 부드러운 멜로디와 가사말까지 좋아 아주 친근한 노래로 기억되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이 노래를 부를 때 만큼은 어린아이 목소리로 한 번 불러 본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어린아이 음성으로 불러보면 그 때 그 시절을 생각하며 젊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 동고동락, 희로애락의 삶 속에서 노래하는 시간만큼은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깊어 가는 가을이다. 빅토밸리 사막에서 지난 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를 모두 잘 견디고 평화롭게 가을을 맞게 되는 감사의 계절! 어린시절에 불렸던 동요(童謡)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 오면….”을 불러보며 열매맺는 가을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Youtube <가을> 어린이가 부르는곡 & 성인 합창단의 곡](#)



##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

인생이라는 극한의 전쟁에서 끝내 승리하는 법

데이비드 고긴스 저 / 이영래 역  
웅진지식하우스  
2023년 06월 26일

“고긴스는 세계적 현상이다”  
‘동기부여의 아이콘’이 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 데이비드 고긴스 첫 회고록 5년 만에 한국 출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행보로 전 세계에 ‘고긴스 멘탈’ 열풍을 일으킨 이가 있다.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 출신의 데이비드 고긴스다. 지금 이 시대에 미국인들이 가장 열광하는 멘탈 트레이너이자 불굴의 정신력으로 스스로 운명을 바꾼 그의 첫 회고록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가 출간됐다.

이 책의 영문판은 독립 출판으로 시작해 출간 즉시 뉴욕 타임스·아마존 1위를 달성했고, 정식 버전으로 출간된 뒤 25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국내에서도 영문판을 자체 번역해 읽는 독자가 늘어갔고 그가 출연한 인터뷰 영상이 지속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에 힘입어 2023년 6월, 드디어 5년 만에 정식으로 한국의 독자들을 만나게 됐다.

이 책은 목숨을 위협받는 학대와 인종차별, 가난과 장애에 시달렸던 그가 136kg의 거구의 몸으로 바퀴벌레 잡는 일을 하던 루저의 삶에서 벗어나 ‘세계 최강의 남자’로 거듭나기까지 직접 체화한 인생의 필승 전략들을 모두 집약했다. 이 책은 개개인 내면에 결코 파괴되지 않을 위대함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각성제가 될 것이다.

### ■ “실패하기 위해 태어난 인생은 없다. 이제 당신이 위대해질 차례다!”

고긴스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 수천억 대의 자산을 모은 것도 아니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는 패배로 얼룩진 과거에서 벗어나 극한의 상황을 극복해내며 인생의 주인으로 거듭났다. 원하는 삶이 있다면 행동하고 결국 그것을 이뤄낸다. 그의 이야기에 젊은 세대가 열광했던 이유는 그가 돈, 명예, 지위보다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돈과 성공의 비법을 살피하는 수많은 알량한 자기계발서가 범람하는 이 시대의 진짜 자기계발서!”라는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의 찬사처럼 이 책이 차지하는 위치는 독보적이다. 스스로 운명을 바꾼 남자의 숭고한 이야기로 독자들을 당장 삶에 뛰어들게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난 격려의 말도, 자기 계발 비법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동기부여로 바뀌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11쪽)” 고긴스는 동기부여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에 결코 파괴되지 않을 위대함을 깨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한 명의 영웅 탄생을 보여주며 “이제 당신이 영웅이 될 차례”라고 말하고 있다. 패배하기 위해 태어난 인생은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침대에 누워 인생을 낭비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 “시민권 시험 어려워진다, 빨리 따자”

이민 당국 내년부터 15년 만에 새로운 양식 도입 앞두고  
한인 신청자 30% 급증  
영어 말하기 늘고, 단답형→선다형으로  
회화 잘 못하면 전처럼 통과 쉽지 않아  
발급 기간 3~4개월로 짧아진 것도 한몫  
시험 패스하면 바로 선서하고 증서 수여



내년부터 더 어려워진 새 미국 시민권 시험이 도입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시험 양식이 바뀌기 전에 시민권을 따려는 한인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을 돋고 있는 봉사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시민권 시험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학교’ 이민법 담당 주디 최씨는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지기 전에 얼른 시민권을 취득해야겠다고 문의해 오는 한인들이 부쩍 많아졌다”며 “예전에 비해 신청자가 20~30% 정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연방관보를 통해 2008년에 개정한 미국 시민권 시험을 15년 만에 업데이트한다며 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동안 새 시민권 문제를 테스트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가 검증을 거쳐 2024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 시험은 영어 말하기 영역이 훨씬 더 어려워져 영어 실력이 낮은 이민자들의 시험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 시험에서는 시험관이 날씨나 음식, 행동 등 일상적인 상황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주면 응시자가 그 내용을 영어로 설명해야 한다.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 곤혹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재는 시험관이 시민권 신청자를 인터뷰하면서 영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데 응시자가 이미 귀화 신청 서류에서 답한 개인정보에 대해 질문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쉬운 편이다.

또 다른 변화는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을 시험하는 영역으로 문제 양식을 현재의 단답형에서 여러 답안 중 한 개를 고르는 선다형으로 바뀐다.

이와 관련 민족학교 담당자는 “이민관련 단체들은 모두 새 시험 양식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시민권 따는 걸 어렵게 하겠다는 정책이 아니어서 알려진 만큼 어렵게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시민권을 취득할 생각이면 문제가 바뀌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시민권 신청→발급 기간이 전보다 훨씬 빨라진 것도 시민권 신청을 서둘러야하는 이유 하나다.

이민국이 팬데믹 이후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영주권 신청 시 제출했던 지문으로 시민권 지문을 대체해 아주 오래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직접 가서 지문을 찍어야 하는 절차가 생략돼 시민권 발급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민족학교 담당자는 “개인 사정과 이민국 사무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요즘엔 빠르면 3~4개월 안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며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선서를 진행하고 그 자리에서 시민권 증서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시험에 패스해도 한 달 정도를 기다렸다가 이민국이 지정하는 대형 장소에 가서 1000여명이 모여 단체로 선서를 하는 광경은 이제 옛날 풍경이 된 것이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의 김광호 시민권 담당 디렉터는 “기존의 2008년 시험 양식은 예상과 준비가 가능하고, 지문 절차 생략 등 한결 수월해진 만큼 가능한 올해 안에 시민권을 따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글>

# 미주 부동산 Interstate Realty

어려울 때 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주부동산 전문인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필렌에 있는 모빌홈을 소개합니다.**



\$85,000  
Double  
Newly Remodeled  
2/2  
980 sqft Approx  
월 \$675  
(Water and Trash 포함)

\$100,000  
Double  
2/2  
1200 sqft Approx  
월 \$675  
(Water and Trash 포함)

\$70,000  
Single  
2/2  
월 \$575  
(Water and Trash 포함)

**Daniel Lee**

danielwcl@gmail.com | 213-272-5505 | 711 S, Vermont, Los Angeles, CA USA

# ‘과학적’이라는 말에 대하여



전치형 |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  
과학잡지 <에피> 편집주간

누가 진짜 과학적인가. ‘과학적’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과학적’이라는 말로 결정과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하고, ‘비과학적’이라는 말로 상대방 주장의 기반을 무너뜨리려 한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특히 심했지만, 다른 사안을 놓고서도 ‘과학적’이라는 말의 힘을 빌려 주장을 관철하거나 갈등을 종결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과학적’이라는 단어에 무엇이 들어 있길래 모두가 가져다 쓰려고 하는 것일까.

많은 경우 ‘과학적’은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측정, 계산, 분석, 예측의 방법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그런 방법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묘사하는 말로도 쓰인다. 하지만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 정부가 ‘과학적’이라는 단어를 꺼낼 때, 거기에는 이 모든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 장비, 인력을 가진 집단의 자신감이 배어 있다. 지난 화요일 오염수 관련 24 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167 건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104 건 결과가 모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해양 방사능은 108 개나 되는 해역에서 측정하고 있고 “‘신속분석법’을 사용해 분석 기간을 기준 2 개월 이상에서 4 일 이내로 단축” 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20 곳의 방사능도 다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규모의 값비싼 ‘과학적’ 활동이다. 이때 ‘과학적’은 각종 자원을 투입해서 획득하는 전리품 같은 것이다.

돈과 시간과 인력이 들어간 연구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보편성, 재현 가능성, 투명성 등 과학을 과학으로 만드는 특성들이다. 오염수 위험을 다루는 활동이

“임의의 제 3 자에 의해 검증되고 재현 가능한 것인지 따져 봐야 비로소 과학적이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레시피의 투명한 공개”가 없다면 과학적 결론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에 머물게 된다(물리학자 이종필). 또 “위험과 연관 관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판단을 유보하고 ‘잠재적 위험성’으로서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위험성 없음’으로 오인한다면 매우 비과학적인 태도”라는 지적도 있다(물리학자 최무영). 이 때 ‘과학적’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갖춰야 할 신중함, 겸허함 같은 태도나 덕목의 문제로 확장된다.

‘과학적’이라는 말이 과학의 본질이나 과학자의 태도와 무관하게 단지 과학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며 의뢰한 일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 원희룡 장관이 서울 –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이 “전문가의 과학적 의견과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사”를 통해 정리될 것이라고 말할 때 (<월간조선> 인터뷰), 이 ‘과학적’에는 분석의 방법이나 과학자의 소신에 대한 관심이 담겨 있지 않다. 그는 관련 유튜브 영상에서도 비슷한 관점으로 말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이 전문 과학기술자들이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과학기술은 정치인이나 관료의 책임은 줄이면서 간편하게 받아서 쓰면 되는 용역 서비스다.

아마도 ‘과학적’은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 그 과정에서 얻는 데이터, 이를 수행하는 태도, 과학자에게 맡긴 일 모두를 지칭하는 말일 것이다. 과학자들끼리 실험 결과를 토론할 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과학의 기초를 가르칠 때, 정치인이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할 때 쓰는 ‘과학적’의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도 괜찮다. ‘과학적’이란 말을 각 영역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할 때 지향할 만한 가치를 충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혼란의 여지는 별로 없다.

그러나 지금 ‘과학적’이라는 말은 공론장에서 함께 쌓아 올려야 할 가치가 아니라 서로 뺏거나 빼앗기는 대상이 돼버렸다. 내가 찬성하는 일에는 ‘과학적’이라는 완장을 채워주고, 반대하는 일에는 ‘비과학적’이나 ‘괴담’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논란을 피하거나 상대를 누르기 위해 ‘과학적’을 무기처럼 휘두르면 ‘과학적’의 여러 의미는 엇갈리고 충돌한다. ‘과학적’이 합의의 동력이 아니라 갈등의 징조가 될 때 과학은 사회적 의사 결정을 위한 제도로서 그 권위를 잃는다. 그건 과학에도 사회에도 좋지 않은 일이다.

## 선인장

정종아

앞마당 화단에  
뭉툭하고 가시 많은  
다육식물 선인장

투박하고 까칠한  
연 초록색 자태가  
마냥 무심하구나

상처 투성이의 몸  
만질 수는 없지만  
가까이 갈 수는 있네

인고(忍苦)의 시간 속에  
불타는 사랑을 밖으로  
모두 한껏 토해낸 꽃

지지말고 오래 피거라  
기다린 만큼 오래 피어  
행복한 모습 보여다오

한없는 어여봄으로  
쓰다듬기를 혀락하는  
나의 꽃, 선인장이여!



선인장 꽃

### 시작(詩作)노트 :

집 화단에 선인장꽃이 피었습니다. 선인장은 건조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 수분을 저장하는 조직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본능이겠지요.

온 몸에 가시를 박고 있어서 접근하기 곤란한 식물이지만 꽃은 천하에 일품입니다. 꽃 색깔도 참 다양하지요. 흰색, 분홍색, 노란색, 붉은색, 황금색, 파랑색 등 이렇게 다양하고 깜짝 놀랍도록 아름다운 것이 선인장 꽃입니다.

선인장은 건강식품으로도 공인되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선인장의 한 종류인 노팔레스(Nopales)가 고혈압, 당뇨, 관절염, 피부미용, 항암, 치매예방에도 큰 효능이 있다 하여, 가시를 다 빼어낸 후 냄비에 물을 끓고 양념을 넣어 우리식으로 탕을 끓여 먹는다고 합니다.

선인장은 꽃과 가시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걸은 딱딱하고 날카로우면서도 내면에서 나온 꽃은 참 부드럽습니다. 선인장(仙人掌)은 모습이 마치 신선의 손바닥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합니다. 손은 비록 차고 거칠어도 마음은 한없이 다정하고 부드러워서 이겠죠? 사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입니다.



## 잊혀진 계절



배상한 시인

이제 10월입니다. 10월 한 달을 지나다 보면 맨 끝자락에 10월 31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월은 가요 ‘잊혀진 계절’ 속에 나오는 그 ‘시월의 마지막 밤’이 들어있는 달입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에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도대체 그해 시월의 마지막 밤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 남자는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뜻 모를 이야기는 무엇이며, 헤어지고서 저렇게 소리 지를 일이라면 차라리 헤어지지 말았어야지’라고 혼자 핑 웃어 보았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용 씨가 언젠가 TV에 나와 1년 동안 벌 돈을 이날 하루에 다 번다는 말을 농담처럼 했습니다. 시월의 마지막 밤에는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노래방이 아마도 한 곳도 빠짐없이 다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 70주년 기념일에 사람들은 ‘광복절 노래’는 안 불렀어도 이 노래는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이용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잘 불러서 유명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멜로디가 아름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가사가 워낙 구구절절 사람의 마음을 울려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관해 관심을 두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노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맨 먼저 가사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멜로디를 먼저 완성하고 가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래로 작곡될 것을 미리 생각하고 가사를 만들었다면 작사가 될 것이고, 그저 떠오르는 감정을 시의 형태로 표현하였다면 시가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어떤 기준 시에 곡을 붙였다면 그 노랫말은 작사가 아니고 작시가 될 것입니다.

가요 ‘잊혀진 계절’은 박건호 씨가 작사했고 이범희 씨가 작곡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날만 되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악의 3요소를 작곡(작사 포함), 연주(노래 포함), 감상이라고 합니다. 연주(노래)를 제2의 창작이라고는 하지만 가요 ‘잊혀진 계절’이 가수의 이름과 함께 이렇게 유명하면서도 정작 원 창작자인 작곡자와 작사자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에 관해 조금 찾아봤습니다.

작곡자 이범희 씨는 1952년 출생으로 서울대 음대 출신이며 현재 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서울>, <잊혀진 계절>,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독백>, <민들레 훌씨 되어> 등의 많은 히트곡을 작곡했습니다.

한편, 작사자 박건호 씨는 1949년 강원도 원주출생으로 젊은 시절의 가난과 1989년 뇌출증으로 인한 언어장애, 오른쪽 수족 마비를 겪으면서 힘들게 살다가 지난 2007년 5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건호 씨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쓴 가사들이 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원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69년 미당 서정주 선생의 서문이 실린 시집 <영원의 디딤돌>을 냈으나 옷 한 벌조차 사 입을 수 없을 만큼 가난했던 탓에 작사가로 활동을 시작, 1972년 <모닥불>을 시작으로 <잊혀진 계절>, <아! 대한민국>, <빙글빙글>, <그대는 나의 인생>, <토요일은 밤이 좋아> 등 총 3,000여 곡의 가사를 썼습니다.

순수시에 기초를 둔 그의 가사들은 감정의 부드러움과 절박함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삶을 진실하고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어 당대 최고의 작사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 시인으로서도 <타다가 남은 것들>, <고독은 하나의 사치였다>, <추억의 아랫목이 그립다>, <기다림이야 천년이 간들 어떠랴>, <그리운 것은 오래전에 떠났다> 등 10여 권의 시집과 애세이집 <오선지 밖으로 튀어나온 이야기>, <나는 허수아비> 등을 냈습니다. 그는 1982년 KBS가요대상 작사상, 1983, 1984년 KBS 제1, 2회 가사대상 대상, 1985년 한국방송협회 주최 아름다운 노래 대상, 1985년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으며 세상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가요 ‘잊혀진 계절’의 숨은 공로자들을 알고나니 이제 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이 노래를 불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쩐지 마음이 아파옵니다.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를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 세월을 의미있게 사는 지혜 (2)

秋湖(추호) 민병열(원로목사)

“가을 바람에  
낙엽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 이더라”

지난번 (9월호, 2023)에 이어 세월을 의미있게 사는 지혜에 대해 두번째 나눔을 기쁘게 생각하며 독자 여러분의 이해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남은 세월, 얼마나 될까요? 그 누구도 그 숫자를 가늠할 수 없지요? 분명한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세월이 끝나면,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특히 경로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기회가 있을 때에 어른들에게 “김장김치 두 세번 담그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던 어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푸른잎도 언젠가는 낙엽이 되듯이, 예쁜꽃도 언젠가는 시들어 떨어지고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이 시간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영웅호걸도 절세가인도 세월따라 덧없이 가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안타깝고 미련이 있을까요? 누구나 그러하듯이 세월이 흘러 갈수록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남은 사람들 마저 세상과 점점 격리되어 외로워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중가요 중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월을 대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필자가 언젠가 이 칼럼을 통해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점짜리 인생을 사는 비결“, 사실 100점짜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 비결?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영어 알파벳 하나 하나에 순서대로 숫자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A-1, B-2, C-3, D-4, E-5, F-6, G-7, H-8, I-9, J-10, K-11, L-12, M-13, N-14, O-15, P-16, Q-17, R-18, S-19, T-20, U-21, V-22, W-23, X-24, Y-25, Z-26. 열심히 일하면 인생백점? 영어로 Hard Work (8+1+18+4+23+15+18+11= 98 점)

공부 많이해서 지식 많은면? 영어로 Knowledge = 96 점, 나이와 국경을 초월한 사랑? Love = 54 점, 운이 좋으면? 영어로 Luck = 47 점, 머니머니 해도 최고라는 돈? 영어로 Money = 82 점. 그렇다면? 100 점 짜리는 없을까요? 정답은 ‘자세’ 영어로 Attitude’ ( $1+20+20+9+20+21+4+5 = 100$  점),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긴장 / Stress)’도 100 점이 나옵니다. 곧 어떤 자세로 세월의 삶에 임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적당한 긴장이 있을 때에도 100 점짜리 인생이 된다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영국 역사상 최장수 국왕의 기록을 가진 엘리자베스 여왕이 2022년 8월 8일 오후에 향년 96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1952년 아버지 죄지 6세에 이어 25세에 왕위에 올라 70년 넘게 국왕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영국 국교회인 영국성공회의 캠브리 대주교인 저스틴 웰비 (Justin Welby) 가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왕께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매일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신뢰와 깊은 사랑은 그녀가 하루 매시간 삶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내와 겸손, 이타적인 봉사, 그리고 혼신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자리인 여왕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 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자세가 첫번째요, 두번째는 여왕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남기려는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다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남아 전해 진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세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 엘리자베스 여왕의 내용은, 하와이 베다니교회의 주보에 실린 글 일부 인용을 밝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송가 435 장)



## 사라지지 않는 알량한 갑질

임세봉 (수필가. 은퇴목사)

요즈음도 심심찮게 사회 전반에 걸쳐 갑질이 기승을 부린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계, 대기업이나 각종 회사 심지어는 종교계에서까지도 그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갑질”이란 무슨 뜻인가? 일반 국어사전에는 없는 용어이다. 다만 국립국어원에서 그 뜻을 찾아본다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이라고 밝힌다. 주로 자신의 지위나 권력 등을 이용하여 그 보다 힘이 없거나 못한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짓밟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욕이나 비하하는 언어폭력, 협박하는 정신공격, 때론 신체적 폭행 등 비열한 다양한 행위가 포함 된다.

한국에서는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첫머리에는 반드시 “갑”과 “을”이 등장하게 된다. 계약 당사자를 간단히 표시하는 글자이다. “갑”은 대개 계약을 주는 쪽이고 “을”은 계약을 받는 쪽이다. 말하자면 “갑”이 더 힘이센 쪽이다. 그리고, 그 “갑”的 횡포를 소위 “갑질”이라고 한다. 어떤 행동을 뜻하는 말에 접미사 “질”이 붙은 단어치고 좋은 의미의 말은 거의 없다. 도둑질, 서방질, 첨질, 주먹질, 이간질, 충동질 등 입에 담기도 불편한 말들이다. 어느 나라든 “갑질”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유독 그 정도가 심한 것 같고 우리 사회의 자연스런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 입이 씁쓸하다.

“갑질”이란 성경 신구약을 막론하고 전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며 성경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라고 명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지극히 크신 하늘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역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갑질”이 곧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 하는 “갑질”이 되는 것이다. 무섭지 아니한가?

성경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므로 하늘 아래 그 누구도 갑질을 하는 “갑”이 되거나 갑질을 당해야 하는 “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최고의 하늘 “갑”이 땅의 “을”을 섬기려고 작정하시고 스스로 “을”이 되어 “을”의 세상에 오셨다. 갈바리에 우뚝 선 십자가는 “갑”이 “을”을 섬긴 역설의 표징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사심을 입은 우리의 가치는 실로 그 측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고양이 한 마리를 더 사기 위해 동네 가게에 들렸다. 그런데, 바로 일주일 전에 100 달러에 샀던 똑 같은 고양이의 값이 500 달러로 껑충 뛰어 있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그 고양이가 어제 400 달러짜리 앵무새 하나를 먹어버렸다는 것이다. 100 달러 정도의 값에 고양이 한 마리를 더 사려던 아주머니는 그 주인의 기상천외한 발상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헐값 인생인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존재로 변신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먹어(?) 삼킨 까닭에! 앵무새를 먹은 그 고양이처럼 예수를 먹은(?) 죄인의 값은 하나님의 가치와 대등한 가치가 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이다(마2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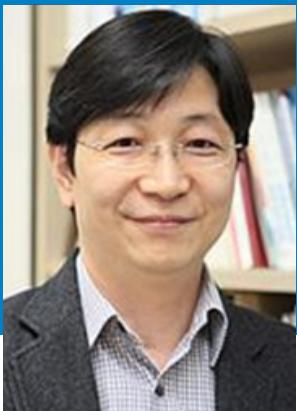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 재벌들이나 권력자들의 갑질이 보도 될 때마다 우리는 분노한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자신 속에 도사리고 있는 “갑질”的 본성은 들여다보지 않는다. 드러나 비난 받는 억울한(?) 갑질과 숨겨져 비난 받지 않는 다행한(?) 갑질 그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다.

성경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십자가의 예수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공동체인 교회 안이라고 갑질이 없을까? 같은 핏줄인 가족들 사이엔 추호도 갑질이 없는 것일까? 평생을 함께 하자고 맹약한 부부 사이엔 또 어떨까? 인간은 그 누구도 “갑질”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인데 타인의 갑질 앞에선 분노하고 소리치는 우리들의 알량한 모습은 꼴불견의 극치 아닐까?

아브라함 링컨은 “진정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 보려거든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어줘 보라”고 하였다 (If you want to test a man's character, give him power). 갑질의 시작은 곧, 내가 뭔가 “더” 있다(교만)는 데서 비롯된다. 상대적인 차별에서 생겨나는 나쁜 행위이다. 가진 자의 횡포에서 오는 그런 상스러운 “갑질”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가슴에서만이 멈출 수 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온유와 겸손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할 때에야 비로소 “갑질”的 현란한 윤무는 그 막을 내릴 것이다.





# 언어와 악마

조현용(경희대 교수, 우리말 선물 저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은 말이 진리임을 의미합니다. 말은 신성한 것이고(언어신성관), 권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언어권위관). 오래전의 말일수록 신의 말과 가까웠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신과 인간이 직접 소통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니 말은 신에게 받았다는 확신도 있었을 겁니다. 말은 나와 신을 이어주기도 하는 진실함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변합니다. 말이 진실의 수단이 아니라 단순한 도구로 바뀝니다(언어도구관). 하긴 도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언어라는 도구가 없었다면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전달과 감정의 나눔이 언어의 중요한 기능인 겁니다. 언어를 배우는 이유에도 의사소통이 핵심과제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거짓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거짓말은 말의 소통 기능을 깨뜨립니다. 소통을 방해하고 오히려 거짓 소통을 조장합니다. 그 말을 믿은 잘못으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사실 믿은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속인 이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속은 사람이 피해를 당한 것이기에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남을 괴롭히는 거짓은 악마의 언어입니다.

악마의 언어는 더 끔찍한 장면을 낳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약성서에 나오는 십불렛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을 죽이는 장면인데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하기 위하여 십불렛이라는 발음을 해보게 시켰다는 겁니다. 이 발음을 씹볼렛이라고 발음하면 에브라임 사람으로 알고 죽였다는 이야기인데 이 때 죽은 사람이 4만 2천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발음으로 사람을 구별하여 죽인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구약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악마의 언어는 구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세기에도 악마의 언어는 작동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비슷하게, 어쩌면 더 비참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대지진의 피해를 조선인에게 화풀이 한 사건으로,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 조선인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때 조선인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일본어로 십오엔 오십전(十五円五十錢)을 발음해보라고 시켰던 겁니다. 일본어의 첫소리 유성음을 조선인은

무성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악마가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지금도 언어는 차별의 수단으로 쓰입니다. 특히 발음을 놀림거리가 됩니다. 혀짧은 소리라고 놀리고, 시옷 발음을 못한다고 놀립니다. 사투리는 차별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로 전학 온 지방 아이들은 사투리로 놀림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도 차별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고 사고의 도구이고 진리의 도구입니다. 언어가 상처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언어가 차별의 도구가 되는 순간, 언어는 진짜 악마가 되는 겁니다.

1923년 9월 1일은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날입니다. 2023년인 올해, 이제 딱 100년이 되었네요. 남의 불행은 언제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맹자의 지적처럼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생기는 일입니다. 맹자의 말처럼 측은지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린다면,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살상(殺傷)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 불행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일이 1923년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조선인이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단지 그 발음을 못했다는 이유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관동대지진 100주년을 맞아 그때 희생당한 일본인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물론 지진 때문이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당한 조선인에게 깊은 애통함을 표합니다. 예기치 않은 타인의 희생이 내게 슬픔인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의 일입니다.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맹자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진실을 숨기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 잠든 사이 인체에서 벌어지는 일들

잠을 자는 동안에 인체는 단순히 휴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고심하던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잠을 깬 후에 떠오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잠을 자는 동안 문제의 해결을 찾기 위해 인체가 계속 일했다는 증거다. 수면 시간은 인체가 단순히 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는 시간이다.

수면 시간 동안 인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자. 수면은 여러 단계로 나눠지는데, 크게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는 1) 렘수면과 그렇지 않은 2) 비 렘수면으로 나뉜다.

급속안구운동이 일어나는 렘 (REM) 수면은 꿈을 꾸면서 자는 수면으로, 심박동과 호흡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비 렘 (NREM) 수면은 다시 수면의 깊이에 따라 얇은 잠인 1 단계부터 깊은 잠인 4 단계로 분류된다.

수면은 비렘 (NREM) 수면 1 단계에서 시작해 4 단계까지 거치고, REM 수면으로 바뀌게 된다.

이 과정이 하룻밤 사이에 보통 4~5 회 반복된다. 인체는 수면 시간 중 꽤 긴 시간 동안 비 렘수면 1 단계와 비 렘수면 2 단계의 얇은 잠을 잔다. 이 시간 동안 뇌는 내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한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 노폐물들이 뇌에 쌓이면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뇌질환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노폐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새로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는 일도 한다. 잠을 자는 동안 새로운 기억이 뇌에 정리되어 저장된다는 의미이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만 저장한다.

수면 시간 동안 인체의 생리적 활동은 느려진다. 분당 호흡 수와 심박동수는 느려지고 근육의 긴장은 풀리게 된다. 또 경계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혈관을 흐르는 아드레날린 분비량도 줄어든다.

혈압과 체온 역시 떨어진다. 수면 전문가들이 수면 시간 동안에 실내 온도를 내리라고 권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내 온도를 낮추면 수면 시간 동안에 체온이 떨어지는 패턴과 일치해서 보다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다.

렘수면 단계에서는 근육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안구 정도만 움직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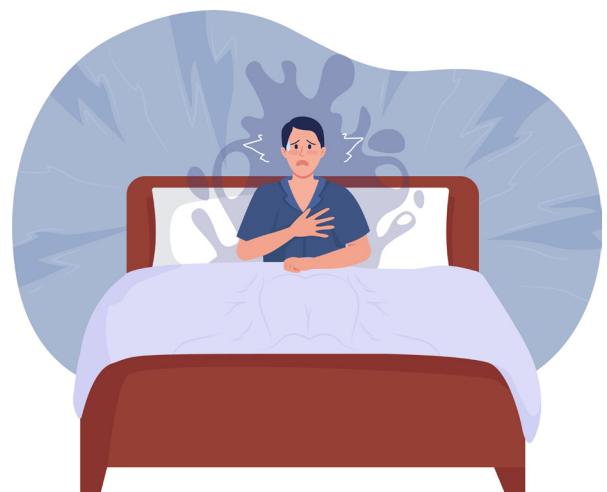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유는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렘수면 단계에서는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의 내용이 폭력적이라면 손발을 움직여서 꿈을 꾸는 사람은 물론 옆에서 잠을 자는 사람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면 시간 동안에 말을 하거나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수면 도중에 비정상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상태를 ‘사건 수면’이라고 한다. 몽유병도 사건 수면의 일종이다. 몽유병은 보통 비 렘수면 3 단계에서 일어나는데,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로 걷거나 옷을 입는 등의 행동을 말한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에 따르면,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걷거나 말하거나 운전하는 등의 행동은 수면 부족이나 혹은 특정 약물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아동들에게는 몽유병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며 성인이라 해도 대부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단, 증상이 자주 반복될 경우 계단이나 난간에서 떨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니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는 편이 좋다.

- 좋은 글 중에서 -



## 펜타닐, 18 세 ~45 세 사망원인 1위

### ▶ “LA 카운티도 위기 상황”

LA 카운티에서 매일 7~8 명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과다복용 사망의 절반은 펜타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A 카운티 내 18~45 세 사고 사망원인 1 위도 펜타닐인 것으로 밝혀져 당국이 나날이 증가하는 펜타닐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은 LA 지역에서도 약물 과다복용 사망 급증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바바라 퍼레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펜타닐은 18~45 세 사고 사망원인 1 위이자 LA 카운티 청소년 과다복용 사망원인의 92% 를 차지하고 있다” 고 밝혔다. 2023년

9 월 현재 LA 카운티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사망자 수는 205 명에 달하며 이는 2022년 전체와 비교해 고작 31 명 부족한 숫자이다.

연방 마약단속국 (DEA) 에 따르면 현재 거리에서 사들인 약물 10 개 중 6 개가 불법 펜타닐을 함유하고 있으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불법 알약이나 가루에 펜타닐이 섞여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황의경 기자>

## 패스트푸드 시급 20 불, 도미노 인상 우려

주지사 서명 땐 내년 4 월 시행

한인 요식업소 · 마켓 등 긴장

업주들 “고용 유지 · 채용 힘들듯”

프랜차이즈 업계 근로자 시급 20 달러 인상안 (AB 1228) 이 가주 의회를 통과하면서 임금 인상 여파가 프랜차이즈 업계 뿐만 아니라 한인 요식 업계와 마켓 업계는 물론 다른 업종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이 법안은 패스트푸드 직원의 최저 임금을 내년 4 월 1 일부터 시간당 20 달러로 올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1 월의 가주 시간당 임금 16 달러보다 4 달러 (25%) 나 웃도는 것이다.

빵을 직접 구워서 판매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전국 60 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식당은 이 조항을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9 명으로 구성된 패스트푸드 임금위원회는 2029 년까지 매년 최저 임금을 최대 3.5% 까지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 해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저시급이 지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한인업계는 AB 1228 법안 시행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한인 비즈니스는 많지 않아도 업계 전반에 도미노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최저시급 20 달러가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되면서 업계 전반에서 임금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주들은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또 일부 업종에 대한 시급 인상안이 나올 때마다 업소 직원들이 들썩였다” 며 “내년 4 월부터 프랜차이즈 직원들이 20 달러를 받게 되면 인력 이동이나 다른 직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식업계 업주들은 “렌트비 , 식재료 등 비용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는데 서버의 시간당 임금

이 20 달러로 오르면 매니저의 임금도 이에 맞춰 인상해야 한다” 며 “결국 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대폭 늘어나면서 음식값을 다시 올리는 도미노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입을 모았다.

한 마켓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근로자의 최저 임금이 오르면 다른 업계에서도 임금에 대한 도미노 효과가 발생한다” 며 “팬데믹 이후 최저 시급이 인상될 때마다 이직이 발생했고 그에 따른 구인난은 더욱 심화했다” 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식당 구인난으로 시급이 뛰어오르면 마켓 근로자가 요식업계로 자리를 옮긴다” 며 “패스트푸드 최저시급이 20 달러가 되면 시간당 20 달러 미만의 직원의 고용 유지 및 채용이 더 힘들어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 홀세일 관계자도 “팬데믹 기간 동안 구인난으로 한인타운 식당 서버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직원 채용에 애를 먹었다” 며 “이제는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구인 경쟁을 해야 할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승호 상법변호사는 “거시적으로 보면 다른 업계로의 임금 상승 확산으로 이어질 것” 이라며 “근로자 임금 인상은 음식값 상승으로 연결되고 결국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LA 의 주거비와 개스값 등 생활 물가를 고려하면 시급 20 달러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노동자 권리 옹호 단체 관계자는 “애 없고 성인 1 명이 LA 에서 살아가려면 최소 21.22 달러는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멘델슨 로펌은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1760 만 명에 달하고, 시간당 20 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760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

한인업소를 이용합시다

# 한국은 낳은 아이도 잘 놓기우는 나라

세계 ‘최저 출산율’ 인데 … 세계 ‘최대 아기 수출국’

해외입양 콜롬비아·우크라 이어 세계 3위  
6·25 이후 1953년 이래 약 20만 명 내보내  
출산 아동 줄다보니 입양수출도 함께 감소  
NYT “과거 해외입양 진상 규명 필요” 보도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세계 최대 아기 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합산출산율이 0.78 명으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반해 해외 입양 등으로 아이들이 줄어드는 아이러니에 봉착하고 있는 셈이다.

매년 전 세계 입양 통계를 집계하는 국제 비정부기구(INGO)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해외 입양 아동 수가 266명이다. 콜롬비아(387명), 우크라이나(277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로 꼽혔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17일 뉴욕타임스(NYT)는 “6·25 전쟁 이후인 1953년 이래 약 20만 명의 한국 아이가 해외로 보내졌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세계 최대 해외 입양 디아스포라(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58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총 16만 8427명이다. 이 중 16만 3696명은 1958~2010년 해외로 입양된 아동들이다. 그 이후로는 ▶ 2011년 916명 ▶ 2015년 374명 ▶ 2019년 317명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아동 수가 줄다 보니 해외 입양도 함께 줄고 있다”고 말했다.

NYT는 이와 함께 과거 ‘수출 산업’ 성격으로 이뤄진 한국의 해외 입양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도 제기했다. 신문은 “한국의 ‘아기 수출’이 처음에는 뿌리 깊은 외국인 혐오와 혼혈아에 대한 편견에서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6·25 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를 미국으로 떠나보내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후 산업화 시기인 1960년대 말부터는 미혼모 아이의 해외 입양이 많아졌고, 1970년대에는 입양 관련 기관들이 돈

벌이 목적으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심지어 친부모도 모르게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덴마크 입양인들로 구성된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은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아기 수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해 관련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는 입양 아동을 보호하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이 협약에 서명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는데도 법적 정비가 지연되면서 협약을 비준하지 못했다.

헤이그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입양 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해외 입양을 허용하고, 입양 절차의 전반을 민간 기관이 아닌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다. 올해 6월에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준의 기틀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법안이 시행되는 2025년 7월에 맞춰 헤이그협약을 비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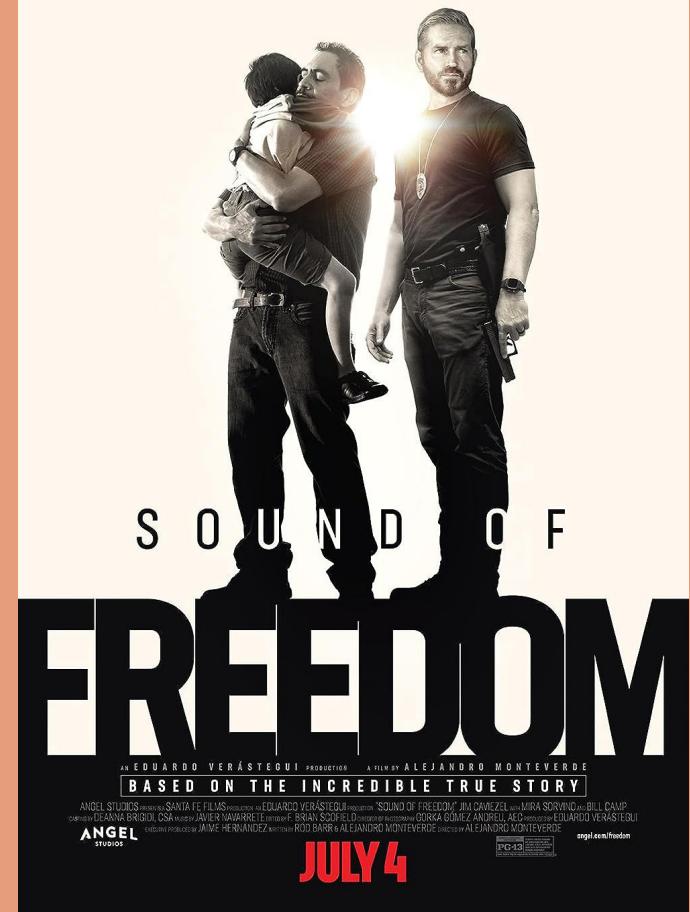


Image: John Chillingworth / Stringer / Getty

July 16, 1955. A group of children orphaned during the Korean War. They are being cared for at the Children's Protective Home in Pusan, South Korea.

(한국전쟁 후 고아가된 아이들 – 위의 기사와는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JIM CAVIEZEL



영화 이야기

## 사운드 오브 프리덤

장르 : 액션

감독 : 알레한드로 고메즈 몬테베르드

각본 : 로드 바로 , 알레한드로 고메즈 몬테베르드

제작 : 에두아도 베라스테구이

주연 : 제임스 카비젤 , 미라 소르비노 , 빌 캠프 외

개봉일 : 미국 국기 2023년 7월 4일

상영 시간 : 131 분

상영 등급 : PG-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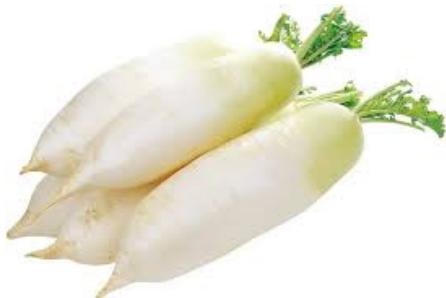
인신매매 구출작전을 펼친다는 미국 비영리단체 Operation Underground Railroad( 일명 O.U.R.) 의 인물 중 하나인 팀 발라드의 실화를 다룬 영화로 , 제임스 카비젤이 주연을 맡았으며 , 2023년 7월 4일에 미국에서 개봉했다 .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하고 총 1,7 억 달러를 벌어들인 흥행작이다 . 북미 개봉 후 대중들의 좋은 평가로 인디아나 존스 5편을 박스오피스 성적으로 누르면서 미디어에서 큰 화젯거리가 되었다 . 하지만 주연 배우의 언행으로 QAnon 음모론이 깃들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많은 논란도 일으킨 편 . 제작은 2018년에 완료됐고 , 20세기 폭스에서 배급권을 쥐고 있었으나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폭스의 모회사를 인수하면서 제작진 쪽에서 도로 배급권을 회수했다 . 여기다 코로나 19 대유행이 껴버렸으니 제작 완료에서 미국 개봉까지 장장 5년이나 걸린 셈이다 .

7월 4일 개봉해 첫날에만 무려 1,400 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1위로 데뷔했다 . 아무도 몰랐던 인디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 : 운명의 다이얼> 을 제치고 정상에 등극하자 사람들의 관심은 폭발했다 . 다만 첫날 흥행수치에 대해선 말이 좀 있는 편인데 2일 차인 다음 날엔 수익이 폭락했기 때문에 어떤 꼼수를 쓴 게 아니냔 지적이 있고 , 논란 항목에서 서술됐듯이 이는 어느정도 사실로 밝혀졌다 . 아무튼 대중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은 덕분인지 꾸준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개봉 16일 차에 1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 7월 31일에는 1억 5천만 달러를 넘으며 제작비의 10배나 되는 흥행을 기록했다 .

## 10월에 좋은 제철음식 Best 6

10월은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끝나 선선한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입니다. 겨울로 가는 준비를 해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건강을 챙겨야합니다. 하지만 먹거리가 풍성해 살찌기 쉬운 계절이라 식단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지요. 10월에 가장 맛있는 제철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 ◆ 1. 무우



무는 활용도가 높은 채소이면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다. 특히 무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는 소화효소로 음식물의 소화를 돋고 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배변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 하나 더 말하자면 비타민C도 풍부하다는 것.

### ◆ 4. 배



배에는 루테올린 성분이 있는데, 항암, 항산화, 노화방지, 신경보호작용, 비만예방등의 효과가 있다. 또 기침이나 가래가 심할 경우 호흡기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가을부터 겨울까지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숙취해소 기능으로 잘알려진 아스파라긴산이 함유되어 있어 숙취해소에도 좋다.

### ◆ 2. 사과



매일 꾸준히 먹으면 그런데 좋다는 사과. 사과의 철이 왔다. 사과에는 식이섬유의 한 종류인 펙틴이 함유되어 있어서 변비예방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노화예방에 좋다고 한다. 유기산도 풍부해서 면역력향상과 피로회복에도 좋다고 하니 하루에 사과 한알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겠다.

### ◆ 5. 고춧잎



10월의 나물반찬 중에는 고춧잎이 최고다. 우수한 영양소를 지닌 식품이다. 채소류27 종류중에 항상화물질인 "이피제닌"은 고춧잎이 가장 많다. 2위인 파슬리보다 2.5배이상 많다. 눈 건강에 좋은 "루테올린"도 가장 많이 들어있다. 칼슘도 풍부한 고춧잎에 잔멸치까지 섞어 조리하면 칼슘보충에 그만이다.

### ◆ 3. 고구마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고구마. 고구마는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건강에 좋다고 한다. 또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기능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식이섬유가 변비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생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색 진액이 변을 부드럽게 한다.

### ◆ 6. 굴



굴에는 세레늄이 풍부한데, 갑상선 호르몬 생산에 매우 도움이 된다. 또 철, 마그네슘, 요오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빈혈에 도우밍 되고 강장제 효과가 있다. 보양식으로 굴을 많이 먹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타우린, 글리코겐 성분이 풍부해서 숙취해소에도 좋다.

## 한인 캠프레시 참여율 아시아계 최저 ( 푸드 스탬프 )

빈곤선 200% 이하 중 11.2%, 4명 중 1명 , 식량 불안정 상태  
“민족별 맞춤 지원 방안 필요”

가주 한인들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캠프레시 참여 비율이 아시아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한인들의 ‘식량 불안정 (food insecurity)’ 상태의 심화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 의학 전문 학술지 헬스어페어는 지난 20일 ‘저소득 아시아계 미국인 , 높은 수준의 식량 불안 상태와 캠프레시 참여율’이라는 제목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연방 기준 빈곤선의 200% 이하인 주민을 대상으로 캠프레시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한인은 11.2%다 .

캠프레시 참여율은 베트남계 (19.5%) 가 가장 높았다 . 이어 일본계 (16%), 필리핀계 (14.9%). 파키스탄, 네팔, 부탄,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계 (14%), 중국계 (12.2%) 등의 순이다 . 아시아계 중 저소득층 한인의 캠프레시 참여율이 가장 낮은 셈이다 . 보고서에서는 “한인 , 중국계 등의 경우는 흑인 (27%),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20.5%), 백인 (18.8%) 과 비교해도 캠프레시 참여율이 현저히 낮다” 며 “참여율이 낮은 것은 정보 부족 , 복잡한 신청 과정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 가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는 내용도 담겨 있다 .

한인들의 식량 불안정 문제도 심각하다 . 캠프레시 참여율이 낮은 상황에서 설령 지원을 받는다 해도 혜택 축소 , 고물가 등으로 식량 불안정 상태는 심화하고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연방 기준 빈곤선 200% 이하) 한인 4명 중 1명 (25%) 은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여있다 . 저소득층 아시아계의 식량 불안정 비율을 살펴보면 필리핀계 (39.5%) 가 가장 높다 . 이어 베트남계 (28.9%), 중국계 (26.7%), 일본계 (26.5%) 등의 순이다 .

연구진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언어 , 사회 및 경제적 지위 , 문화적 관습 , 이민 역사 , 다양한 출신 등 매우 복잡하게 구성된 이질적인 인종이라고 규정했다 . 그동안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불이익 없이 동질적 집단으로 묘사되는 ‘모범적 소수자’라는 고정관념 탓에 아시아계가 타인종보다 식량 불안정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보고서를 작성한 밀키 부 교수 (노스웨스턴 의대) 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민족별로 세분화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이를 통해 지역별로 언어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리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전했다 .

DPSS 에 따르면 지난 7 월 기준으로 캠프레시를 받는 한인 수혜자는 총 1 만 2572 명이다 . 지난 팬데믹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 이는 정부 지원이 필요할 만큼 식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이 많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

한편 ,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1~2020년 사이 다섯 번이나 진행된 가주보건인터뷰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시아계 미국인 응답자로부터 취합한 데이터를 사용해 작성됐다 . 한인은 1128 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

### 타운 게시판 Classified



룸메이트 구합니다 .  
부엌 같이 사용 , 화장실 따로  
저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를 머무니  
편안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  
가격 \$600 문자 남기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213-407-1146

바스토우 Vesta ( 비타민 샵 )  
에서 직원분을 구합니다 .  
연락처 : 써니 760-267-2227  
760-256-8880



빅토빌 쥬얼리샵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  
남녀 상관 없습니다 .  
714-220-7253



식사준비 도와 주실분 구합니다 .  
환자 식사 포함  
323-707-5551 로 연락 주세요

방 2, 화 1 단독주택  
랜트 \$700  
헬렌데일, 부부환경  
760-810-8888



## 건강 떡

퓨전떡, 웰빙떡, 떡케익, 현미떡,  
강정, 화과자, 이바지, 백일, 둑, 생일  
청국장  
760-590-7608  
213-505-6167



**방렌트 \$450**  
  
잠만 주무실분 빅터빌 새동네 새집  
집주인 혼자 살아 조용합니다.  
맥도널, 인앤아웃버거, 팬더 EX 등 모든  
햄버거집 미국마켓 3~5 분거리  
15 Fwy 에서 1 마일 3 분거리  
714-833-4862

## 필렌 렌트

- 큰방 (1 bed, 1 bath, 거실, 부엌마당) \$850
- 작은방 (1 bed, 1 bath, 거실, 부엌마당) \$650
- \* 필렌, 독립된 넓은 주거공간  
714-315-5702

**필렌 방렌트** (자동철문, 감시카메라, 주차장완비)  
1) 조용한별채 (방 1, 부엌, 화장실, 샤워실)  
\$ 580  
2) 방 3 개 (부엌, 화장실, 샤워실)  
\$850 필렌사거리에서 4 분거리임  
(213) 445-2488 

**방 1 화장실 1 렌트**  
Freeway 옆  
909-961-6708 

**필렌 큰방 렌트**, 욕실, 부엌이 큼 \$700  
단독 게이트 / 인터넷 가능  
작은방 살림가능 \$500  
213-381-2007 

## 방렌트 한적하고 깨끗한 집

1. Master Room \$750  
방 아주 크며 욕조와 샤워시설과 넓은 Dress 룸
2. 독방 \$500  
위치 : 395 번과 18 번 사이 월마트 근처  
조용한 주택가이며 방문하신후 결정하세요 .  
832.707.9558 (전체 집 렌트 가능)

**필렌 방 렌트**  
감사한인교회 근처  
\$600 부엌, 화장실 있음  
여성분 환영  
760-995-0855 



**헤스페리아**  
Guest house rent  
2Bed/ 2Bath  
Kitchen / wifi free  
213-215-2266

**Apple Valley 집 렌트**  
4 Bed, 3 Bath 2850 SF  
1.2Acre lot \$2,600/mo  
안전하고 조용하며 골프장 근처 집  
213-453-6136 

**히스페리아 하우스**  
(3+2) 2,050 sf. \$1,950

**필렌 큰방 렌트 (1+1) \$600-\$800**  
필렌길 북쪽 1 마일.  
2016년생 새집. 부엌, 거실, 인터넷, 자동게이트  
213-272-2777 

# 한인 업소록

## 건축.철공.전기.자동문.페인트.플로어

샤인페인팅 & 리모델링 951-205-8235

Exwin.com 네트워크 & 냉동 805-338-8845

Jay's Fence (철공소) 760-780-9944

Lee's Painting 310-259-4490

미라클 전기  
월드 건축 리모델링 213-785-4333  
760-948-9239  
213-381-7369

천사페인팅 760-217-5775 / 760-505-5478  
에이스 에어컨 및 상업냉동기 수리:  
949-633-8387 / 213-798-2422

Mission Construction 213-700-3071  
323-804-4228

## 조경. 중장비.땅정지작업

백스조경 714-797-9000 / 310-933-0005

## 인테리어. 블라인드

비바 블라인드(커튼.마루바닥)  
(창문.인터리어) 213-503-9943  
213-364-2911

## 핸디맨

J.S 핸디맨 각종집수리 760-713-9648

S.V. Handyman 213-700-9778 / 213-820-3045

천사핸디맨 760-217-5775 / 760-505-5478

## 골프클럽

Apple Valley Golf Course 760-242-3125  
20185 CA-18, Apple Valley, CA 92307

Ashwood Golf Course 760-240-1800  
10885 Apple Valley Rd, AV, CA 92308

Green tree 골프코스 760-949-4700  
14144 Green tree blvd Victorville Ca 92395

## 공공기관

한국 문화원 323-936-7141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총영사관 213-385-9300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Edison (전기) -한국어 1-800-628-3061  
Verizon 한글 서비스 1-800-483-7772

## 교회.선교원.사찰

감사한인교회 (최호신목사) 760-587-9048  
10570 Phelan Rd Oak Hills, CA 92344

나눔동산 교회 (류창렬목사) 760-221-8379  
4166 Nielson Rd., Phelan, CA 92371

빅토밸리 복음교회(이영근 목사) 760-265-5690  
9191 Deep Creek Rd., Apple Valley CA 92308

빅토밸리 소망교회 (양성은목사) 213-500-8271  
9280 Maple Ave Hesperia CA 92345

하이데저트 중앙교회 (임영호목사) 760-605-3979  
13878 Apple Valley Rd, Apple Valley, CA 92307

하이데저트 행복한교회(김상대목사) 714-476-9165  
7898 Phelan Rd Phelan, CA 92371

히스페리아 연합감리교회 (이종구 목사) 678-984-7179  
18623 Main st. Hesperia Ca 92345

HD 은혜교회 (강기평목사) 760-844-0882  
15378 Ramona Ave, Victorville, CA 92392

가주 열린교회 (한준기목사) 760-718-0330  
501 E. Virginia Way #30, Barstow, CA 92311

미주 나눔교회(Paul Shin목사) 949-648-3431  
3221 CA-2 Wrightwood, CA 92397

バス토 한인교회 (서정관목사) 760-912-6516  
416 S. 7th Ave, Barstow, CA 92311

빅토빌 예수마음교회 (김성일목사) 760-220-3263  
15860 TAO ROAD, APPLE VALLEY, CA 92307

빅토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김성원목사) 818-632-2003  
11177 Hesperia Rd Ca 92345

빅토밸리 우리교회(박일병 목사) 626-628-6605  
8954 Arrowhead Rd, Phelan, CA 92371

빅토밸리 한인천주교회 760-780-5523  
(Holy Family)  
9974 I Ave, Hesperia, CA 92345

새벽별 한인 교회 760-949-8143  
8642 Phelan rd Pihelan Ca 92371

새생명한인교회 (김송국목사) 760-887-4848  
16165 Walnut St, Hesperia, CA 92345

생명길교회 (최영효목사) 760-885-9521  
9565 Sonora Rd, Phelan, CA 92371

살롬교회. 살롬기도원 213-219-1187 / 213-248-0191  
9191 Deep Creek Rd, Apple Valley, CA 92308

소망수양관 (김재율목사) 213-550-7377  
3270 Mountain Springs Rd. Wrightwood, CA 92397

실버레이 한인교회 760-241-7484  
14766 Smithson Rd Helendale Ca 92342

열린문기도원 (우정은목사) 760-249-5858  
5705 Stone Bassin Rd, Phelan, CA 92371

주의사랑선교교회 (백석영목사) 760-694-3735  
11373 Oasis Rd Phelan CA 92372

큰빛교회(황태수목사) 213-284-4858  
8630 Sheep Creek Rd., Phelan, CA 92371

필렌 성은교회 (김성권목사) 213-503-9943  
9767 Sierra vista rd Phelan Ca 92371

하늘소망 기도원(김아브라함 목사) 714-366-7294  
6483 mountain shadow manor ln Phelan, Ca 92371

한인성안교회 (고정희) 760-995-0855  
8954 Arrowhead Rd, Phelan, CA 92371

R7 Vision Church(무지개비전교회) 714-451-5839  
9526 Vinton Rd, Phelan, CA 92371

## 농장. 꽃집, 아트.분재원

애플밸리 농장 (대추, 매실액기스, 생꿀, 도라지와)  
213-292-1338

오아시스 대추농장 760-680-7076  
26848 Desert View Ave, Apple Valley, CA 92307

김스분재원 760-949-7500  
대관령 213-675-6700  
로얄농장 Royal Farm 213-507-3638  
루션대추농장 310-505-9776  
리안 매실농장 760-964-6311

마리아 대추농장 Mary's Farm 213-604-6744  
마운틴하이 농장 Mountain High Farm 213-500-7013  
만나(복숭아)농장 858-414-0436

매실사랑농원 714-876-4679  
매향 매실농원 213-210-1014  
무지개 농장 213-447-0868

문스분재원 213-700-7694  
민구네농장 760-248-7788  
박씨네 청 매실농장 760-868-2849  
부부농장 213-369-5242  
빛고을농원 213-284-4858

사철농장(대추.사과.배.각종 과일)  
손스농장(대추) 213-200-1944  
760-987-1157

아델라 농원 (다육이 전통식품) 760-684-2024  
에덴농장(매실) 213-200-1944

엘마리자 청매실농장 310-901-2280  
예산농장(매실액기스.도라지) 562-556-4402

오매 농장(청매, 흥매, 황매, 매실액기스)  
우리농원 213-276-0479 213-268-0201

율곡매실, 강스너서리 213-393-1060  
13576 Buttemere Rd, Phelan, CA 92371  
인디안하니 760-249-6162

작은대추나무집(루션밸리) 909-568-5257  
주말 농장 Weekend Farm 760-240-2137

채소농장 760-868-1251  
천스농장 760-249-6500

청실홍실클래식농장: 760-912-3410, 760-662-8106  
청정 매실농원 760-995-5359

평강원 760-249-3833  
필랜 사랑매실 농장 909-609-4186  
하이데저트 농장(꿀배, 대추, 매실)  
234 Sacramento Rd. Pinon Hills, CA 92372

ART & FRAME 760-243-1269  
Base 꿀대추 Camp 213-576-9133

BETHEL FARM 760-249-8867  
Cambria Farm 213-321-6761  
EC Jujube Orchard 425-777-0028

HESPERIA FLORIST 760-244-0689

Jang's Family 213-210-8645  
JC Lucerne 212-819-3334

Joe's Lawmower (정원 기구상) 760-240-3363  
Joseph's Farm 760-249-3613

JR Ranch 626-236-8251  
Jung's Farm 714-833-9575

Lucerne Jujube Farm 310-505-9776  
Modo Farm 714-313-5999

One Family Farm 213-820-4297  
Serenity Farm 213-249-0044

Star Farm 323-384-9245  
Sunny Hill 213-705-8811

**한미뉴스 광고문의  
760-968-7148**

한인업소를 이용합시다

## ☎ 금은방

제이카스텀주얼리 760-881-9480  
14668 7th St #4, Victorville, CA 92395  
Caleb Jewely 760-243-6929  
14668 7th St. #B7, Victorville, CA 92392

KIMBERLY JEWELRY 760-247-9206  
22110 HWY 18 #8, APPLE VALLEY, CA 92308  
Sharon Jewelry 714-220-7253  
14560 Palmdale Rd. Victorville, ca 92392  
QUASAN JEWELRY 760-241-6966

## ☎, 동물병원, 애견센터,grooming.

사마리탄 동물병원 760-240-6000  
17471 Bear Valley rd. Hesperia, Ca 92345

해피강아지그루밍 760-784-9090  
13295 Spring Valley PWY, Victorville, CA 92395

Wowfish & Pet : 760-241-0132/ 213-268-0559

## ☎ 공증

Pro One 공증 760-868-5555  
3936 Phelan Rd.B-14, Phelan, CA, 92371

## ☎ 단체

빅토빌한인회(최영모)	213-327-5625
샌버나디노 한인회(제인황)	323-244-8867
하이데져트 영농조합(고성구)	760-987-8244
빅토빌한인목사회(김송국)	760-887-4848
빅토빌 원로목사회(신광철)	760-203-0403
하이데져트 노인회(김 광)	213-550-6665
리버사이드 한미 노인회	951-204-3434
한인골프 동호회	213-550-6665
한타골프회	714-315-5702
흥사단 한인 스카웃	323-620-4848

## ☎ 미용실

리안미용실 760-490-1291, 760-881-3740  
13295 Springvalley pky #F Victorville Ca 92395

무지개미용실 213-500-6523

Blazing Scissors(Young kim) 760-912-7318  
13728 Hesperia rd Victorville Ca 92395

## ☎ 변호사

빈센트 김 변호사	760-912-2669
HN 교통사고 변호사	714-598-5924
병원, 쇼셜 통역 서비스	714-615-6878
주의사랑 법률 서비스	760-694-3735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하이데져트 변호사 High Desert Law Firm (한국어) 310-953-2777 / 760-615-0088	

## 한미종합법률센터(유학,이민,법률,TAX)

213-272-7498

## ☎ 병원.한방.척추 신경.약국.건강식품

Chris Lee, MD Senior Clinic 760-927-1879  
18270 Siskiyou Rd #A, Apple Valley, CA 92307

Denture (틀니전문) 714-414-6502  
9355 Chapman Ave, Garden Grove, CA 92841

Unicare Healing Center 909-270-6338  
19916 Grand Vista St. Apple Valley, CA 92308

숨은 명의 한의원 909-270-6338  
15995 Tuscola Rd #201 Apple Valley CA 92307

나눔 종합병원 760-552-4470  
15095 Amargosa Rd, Bldg 1, #102,  
Victorville CA 92394

최익철 한의원 213-276-0479

경희한방 760-242-3552  
18031 Hwy 18, # F, Apple Valley, CA 92307

데저트치과(desert dentist) 760-244-5047  
14661 main st hesperia ca 92345

명심당 한방척추병원 562-879-3856  
14519 Main St, Ste B, Hesperia, CA 92345

스마일치과(smile dental) 760-243-5437  
14238 valley center dr victorville ca

아이메니저(안경원) 714-752-6677

양로홈 주의사랑 선교교회 직영 760-868-8583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형제약국 909-222-4884  
1040 S. Mt. Vernon Ave, Ste-E, Colton, CA

Dr.WONSIKYI BOLLMANN 760-951-1234  
Foot Doctor(한국인)  
15366 11th St # A, VICTORVILLE, CA 92395

HYUN BONG LEE.D.O 760-242-9262  
18419 Hwy 18,#6, APPLE VALLEY, CA 92307

Oasis 약국 760-242-4080  
15433 W. Sand St. #102, Victorville, CA 92392

OK-GO한의원 760-843-3700  
14270 7th St #3, Victorville, CA 92395

VALLEY DENTAL(신우철 D.D.S.) 760-243-5410  
14880 7th St. #1, VICTORVILLE, CA 92395

V.I.P DENTAL 760-952-2102  
16200 Bear Valley Rd., VICTORVILLE, CA 92392

## ☎ 의류,신발, 스웻밀,각종상점및 세탁소

Miko Cleaners 760-881-2860

남자옷가게(전면춘) 760-843-6742

남자옷가게(홍용일) 760-955-1571

신발가게 760-245-6919

B.S. Shoe Town 760-256-8686

EXIT MEN'S WEAR 760-843-0709

## FANCY LADIES

760-241-0046

## HAT TRIX(JAME KAN)

760-843-8011

## PARK'S SHOES

760-245-4341

## Solo Wear

760-243-2207

## THE ORIGINAL OUTLET

888-657-4517

## 760-493-1410 빅토빌 걸러리아몰 내

213-255-6063

## ☎ 스킨케어

### 닥터키 헬스엔뷰티

760-870-4181

## ☎ 보험.

### 하이디 엠 메디케어보험

760-239-9006

### 한현자보험

760-780-5990/ 213-284-9515

### 뉴욕 라이프 조셉신

323-620-4848

### 뉴욕 라이프

760-524-6457

### 클라리안 보험

951-836-0522

### National Life Group

213-245-4800

### NBA 보험플랜

626-388-5019

### Uskor Insurance Services

213-559-7573

## ☎부동산.감정.융자

### 김제인 부동산 Red Point Realty

213-272-2777

### 김평희 뉴스타 부동산

626-461-6922

### 로즈김(명희) 뉴스타부동산

714-247-9100

### 미주 부동산

213-272-5505, 213-550-7090

### 샌드라 영김 부동산 (다이나스티 부동산)

714-749-4988

### 조앤 김 부동산

213-393-3636

### Pro One Realty

760-868-5555

### 3936 Phelan Rd.B-14, Phelan, CA, 92371

### Top Properties & Investment 760-868-0100 9035 Sheep Creek Rd, Phelan, CA, 92371

### 김우경 REALTOR

213-304-1024

### 뉴스타 부동산

760-810-8888

### 15367 Bonanza rd victorville ca 92392

### 럭키부동산 (Ann Suh)

760-880-1004

### (Jim Suh )

760-948-2778

### 베스트 부동산

760-912-2288

### 비스타부동산(Vista realty)

760-792-6767

### 에덴부동산(Eden REALTY)

760-868-1004

### 영홍(Young Hong) 뉴스타

213-820-0218

### 유나이티드부동산

760-954-5701

### 저스틴 부동산

760-881-9018

### 조해나

760-995-0319

### 프로페셔널 리얼티

760-267-2227

### 한인크레딧유니온

213-368-9000

### 현대 부동산 (Stan Kim)

213-422-6561

### America Realtor

626-348-1763

### BizPro Real Estata

626-217-3210

### ERA J Tidwell Phelan

760-900-3595

### Forever Realty Inc.

760-475-0777

### GLOBAL REAL ESTATE

760-694-7337

### Grace Hwang (헬렌데일)

909-938-8878

### J & T 부동산

213-944-5600

### Premier Properties

760-912-2288

760-686-3444

## ▣ 세무

**BR TAX** 760-968-7148  
최종원 공인세무사 909-939-4539

## ▣ 식당

**ithinkso Cafe** 323-774-9144

마운틴탑 카페&레스토랑 760-249-4811  
7637 Hwy 138 Phelan Ca 923

사무라이 스시 1호점 일식집 760-843-5858  
14464 7th #7, Victorville, CA 92395

사무라이 Sushi 2호점 760-948-2928  
15550 Main st hesperia ca 92345

서울가든 760-243-7050  
15449 Anacapa rd victorville ca 92392

웰빙 순두부(반찬가게) 760-241-8888  
15024 Bear valley rd victorville ca 92392

토쿄 스시 760-955-7123  
14741 7th St#A, VICTORVILLE, CA 92395

A1 Grill, Teriyaki & Roll 760-949-8900  
15061 Bear Valley Rd, Hesperia, CA 92345

BURGER BASKET 760-868-3399

Flame broiler 760-246-3100  
14148 Us Hwy 395 #3B, Adelanto, Ca 92301

Flame Broiler 760-948-5555  
16922 Main St. #G, Hesperia, CA 92345

House of Joy (홍래각) 760-241-7023  
14745 Palmdale Rd. Victorville CA 92392  
Linko Sushi 760-240-1125

Mogolian Grill\_(BBQ) 760-962-1100  
(Bear Valley 백화점내 Food court)

P2-Myungga (명가) 909-799-1727  
1760 S Tippecanoe #C San bernadino Ca 92408

Pho Van 월남국수 760-951-0869  
12353 Mariposa Rd., Victorville, CA 92392

Red Mango Grill & Sushi 760- 868- 6006  
4037 phelan rd #E phelan Ca 92371

Sakura BOBA Cafe (보바주스) 760-245-6443  
14464 7th St #A, Victorville, CA 92395

Sushiaru 스시아루( 정통일식): 760-245-1113  
15683 Roy Rogers dr victorville Ca 92394

U -Grill 909-899-1111  
12728 foothill blvd ranchocucamonga

W-Spoon Buffet & Grill 760-241-0900  
14689 Valley Center Dr. Victorville, CA 92392

## ▣ 생수

알카리 생수(Phelan Town Square) 760-868-9957  
알카푸로(Alkapuro) 생수 760-964-6311  
알카리 정수기 323-821-3171

## ▣ 세탁

웃수선 Star Tailor 760-646-7600  
15885 Main St Hesperia CA 92345  
Amber Cleaner 760-241-8751  
13738 Bear Valley Rd B-4 Victorville, CA 92392

Best 세탁소 760-956-7788  
Hi Desert Cleaner 760-241-8283  
New Amber Cleaners 760-868-1086

## ▣ 유리

시윤유리 213-369-7000  
코너스톤 유리 760-244-3529

## ▣ 온천

실로암 유황온천 951-245-9500  
215W.Graham Ave LakeElsinore Ca 92530

에메랄드 온천 213-822-4271  
68055 Desert Club Cir. Hot Springs, CA 92240

## ▣ 자동차.정비.바디샵.오디오

kim`s auto &repair ,smog 909-806-4304  
24927 E.5th St San Bernardino CA 92410

## ▣ 청소

Propfessional Carpet System 760-680-6444  
Royalty Carpet Care 760-961-1447

## ▣ 학원.학교.레슨

경피아노 213-785-1484  
미술 교실 909-829-2376  
바이올린 레슨.갤러리 760-247-8000  
사물놀이(장구,탈춤)강습 323-578-8682  
323-578-8351  
에스터피아노 909-342-4159  
임마누엘 피아노레슨 323-369-7304  
포르테 피아노 909-839-0494  
SAT학원 760- 596-8189  
16501 Walnut St #3 Hesperia Ca 92345

## ▣ 화장품

뉴스킨 화장품 562-480-9088  
시세이도 화장품 909-919-2537  
아토미 화장품 213-820-5546  
아토미 화장품 951-202-9079  
참존 로제 화장품 전문 760-956-5679  
코리아나화장품 909-510-9310

## ▣ 항공사

대한항공 800-438-5000  
아시아나 800-227-4262

## ▣ 호텔.산장

파인 추기 캐빈&호텔 760-249-9974  
6045 pine st wrightwood ca 92397

허니베어 호텔 909-556-4458  
40994 Pennsylvania Ave., Big Bear Lake, 92395

Comfort Suite Hotel 760-245-6777  
12281 Mariposa Rd, Victorville, CA 92395

Hawthorn Hotel 760-949-4700  
11750 Dunia Rd Victorville Ca 92392

Holiday Inn Express 760-244-7674  
9750 Key Pointe Ave, Hesperia, CA 92345

## ▣ 터마이트 .페스트 컨추를

K Town Termite & Pest Controll 714-334-3655

## ▣ 피아노조율

피아노 조율 서비스 213-500-2573  
피아노조율 909-839-0494  
피아노 조율 서비스 213-550-8385

## ▣ 택시.공항픽업

공항픽업 562-756-0005  
기쁨택시 760-701-2819  
조은택시 213-598-2653  
조이택시 (jOY TAXI) 909-697-5551

## ▣ 택배.운송

빅토빌 택배 760-820-4989  
12127 MALL BLVD VICTORVILLE, CA 92392

## ▣ 리사이클링

ADAMS RECYCLING 213-820-5058  
12165 KIOWA RD APPLE VALLEY, CA 92308

## ▣ 마켓

하나 Asian 마켓 909-890-1556  
한남체인 (다이아몬드 바) 909-839-1121  
Green market 626-912-1012  
H. market 909-839-0300

# 최대의 광고효과

한미뉴스 광고문의  
전화번호누락,변경 신고

760-968-7148

한인업소를 이용합시다

# 생활영어

## Everyday



1. I will decide later. 나중에 결정할께요 .  
아이 월 디싸이드 레이럴 .
2. I beg you pardon?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아이 배규 팔든 ?
3. How often do you go hiking? 얼마나 자주 산에 오르죠 ?  
하우 오프튼 두 유 고우 하이킹 ?
4. I'd like to take out a loan.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  
아인 라일 투 테일 아웃 어 로운 .
5. Enjoy your meal. 맛있게 드세요 .  
인조이 유얼 미얼 .
6. We are the same age. 우리 동갑이네요 .  
위 알 더 쎄임 에이쥐 .
7. You better go see a doctor. 병원에 가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  
유 베럴 고 씨 어 닥털 .
8. Let me see. 가만 있어 보자 .  
랼 미 씨 .
9. I'm the oldest. 저는 맏이에요 .  
아임 디 올디스트 .
10. Call the police, please. 경찰을 불러 주세요 .  
콜 더 폴리스 , 폴리즈 .

열 문장을 다 한번에 외우기 보다는 자주 쓰시는  
한두 문장을 골라서 외어 사용해보세요

# 四字成語

사자성어(고사성어)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며 배워야 할 지혜와 깊이  
있는 삶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 10월의 사자성어

**思無邪 (사무사):**  
생각함에는 사악함이 없어야 한다

**君家受福 (군가수복):**  
어진 행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安居危思 (안거위사):**  
편안할 때 재난에 대비하라

**非禮不動 (비례부동) :**  
禮에 맞지 않는 것 이라면 행동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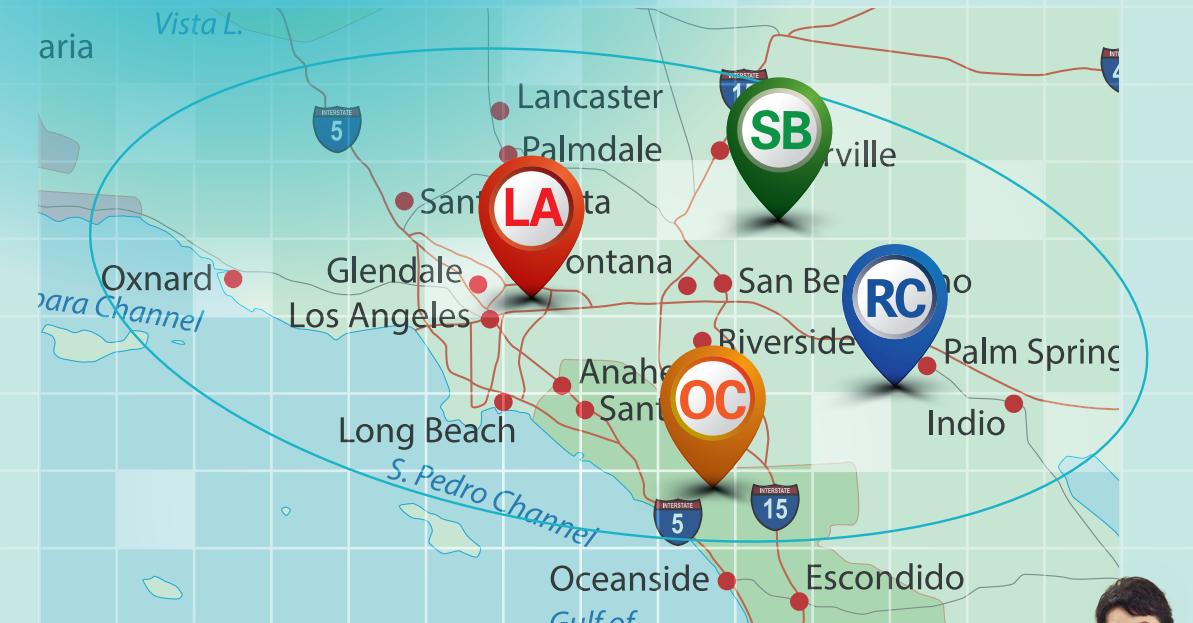


## 재미있는 유머

1. 대문에 '개조심'이라고 써 놓은 집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개 도둑
2. 세탁소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차는?  
구기자차
3. 알부자는?  
계란 장수
4. 하늘에서 사는 개는?  
안개, 무지개, 번개
5. 젖소와 강아지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  
강아지

# Center IPA Medical Group

남가주 2,000+ 명  
이상의 의료진이  
당신의 건강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주치의와 협력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료하며,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메디컬그룹입니다.



1. 최우수 등급 메디컬그룹
2. 리퍼 2-3시간 내 가능
3. 조기 암 검진 및 예방 검진
4. 한방, 물리치료, 치과, 보청기, 안경 등 각종 의료기구 혜택

메디케어, HMO,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센터메디컬그룹**으로  
지금 바로 선택/변경 가능합니다.



센터메디컬그룹  
Center IPA Medical Group

LA 213.226.8006

OC 714.980.3532

LA County | Orange County | San Bernardino County | Riverside County

# Chris I. Lee, MD Senior Clinic

20년 경력의 주치의가 Victorville, Apple Valley, Hesperia, Phelan 지역에 새로이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어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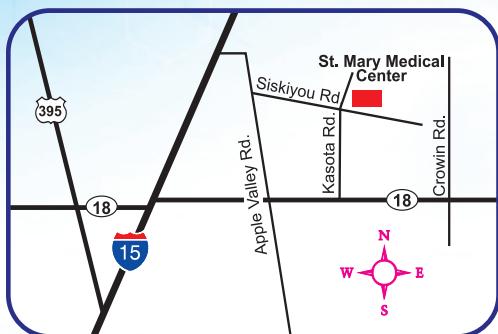
## 진료시간

월요일 - 금요일: 2 PM-6 PM

토요일: 8 AM-4 PM

(진료는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760] 927-1879**



**18270 Siskiyou Rd. #A  
Apple Valley, CA 92307**

(St. Mary Medical Center 뒤쪽에 있습니다.)



**Chris I. Lee, MD (이 익준)**

### 약력

- 연세 대학교 화학과
- UCLA Biology
- New York 의대
- Harbor-UCLA Internship
- Harbor-UCLA Family Medicine Residency
- Family Medicine Board Certified
- Rowland Heights 동부병원

# 여러분의 전기료 확! 줄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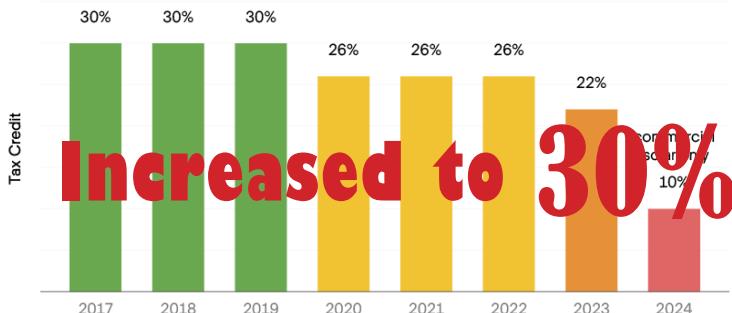
## SAVE ENERGY= SAVE MONEY



- ✓ 30~50% 절감
- ✓ \$0 Down
- ✓ 25년 보증
- ✓ 한국산 패널 설치



Solar Tax Credit Step Down Schedule



### 대니엘 리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dlee@calstatedev.com](mailto:dlee@calstatedev.com)

# 213.272.5505

한인업소를 이용합시다